

#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미국 대선

- 연방대통령 + 하원의원 + 상원의원(일부) 선출



# 트럼프가 위험한 이유?

- 한국의 국익에 위협  
(방위비 분담분 인상 요구, 자동차 반도체 등 수출산업에 불리)
  - 세계정세의 불확실성 야기
  - 보수적, 우익적인 정치적 입장
  - 인종차별적, 성차별적 언행
  - 민주주의를 위협
- 
- 어떤 기준에서 트럼프가 위험하다고 볼 것인가?

# 트럼프를 넘어서는 '트럼프주의(Trumpism)'

- "트럼프와 그의 지지층과 연관된, 정치이념을 구성하는 미국의 정치운동" (위키백과)
- 단지 선거에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을 넘어, 사상적 이념적 흐름에 기초한 대규모 정치운동이 존재함을 강조하는 용어. 물론 트럼프가 이를 표면화하는 데서 핵심 역할을 했지만, 그전부터 사람들 사이에서 발전해왔던 큰 흐름이 있었다는 것.
- 위키백과는 이를 "우익 포퓰리즘, 민족 보수주의, 신-국수주의의 결합"으로 규정. 그러나 트럼프주의 역시 다양한 해석이 있음.
- 어떤 기준에서 트럼프주의를 비판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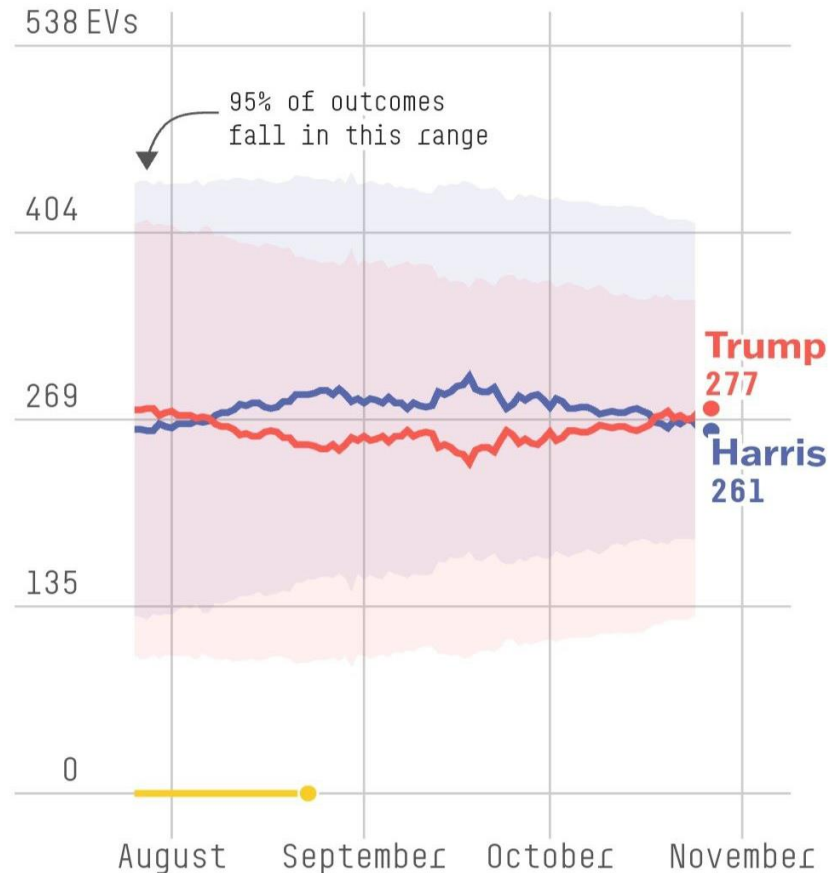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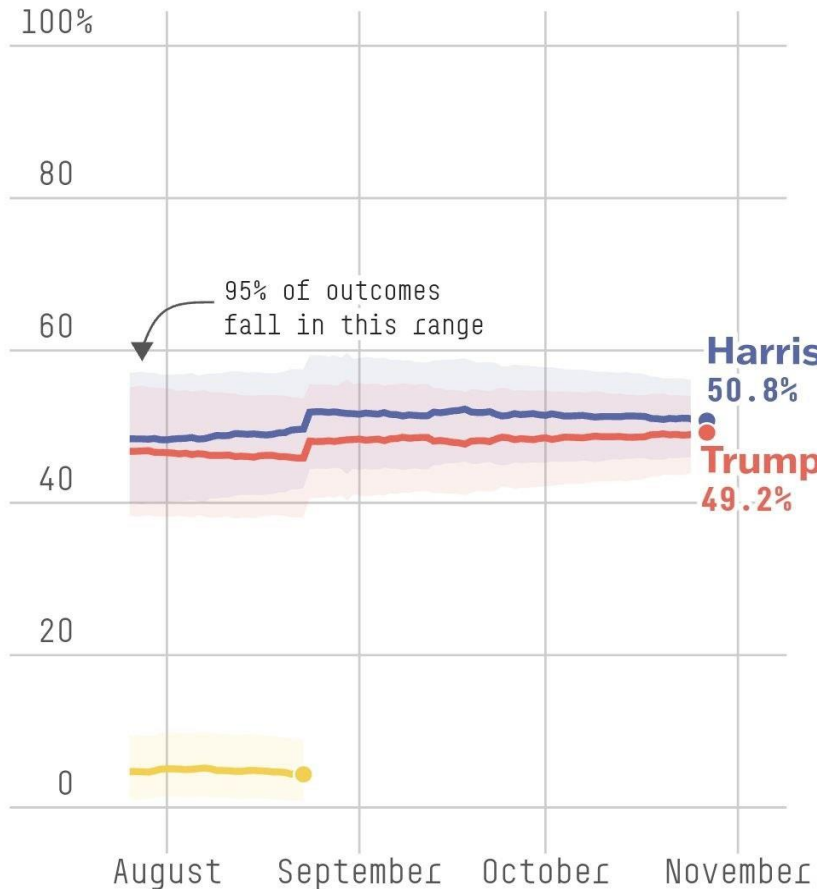
# 이번 강좌의 요점

- 일단은 미국에서 일어나는 현상 자체를 객관적으로 살펴봐야.
- 특히, 트럼프를 향한 미국인들의 지지가 꾸준히 높다는 점, 강력한 대중운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점.
- 트럼프 지지자들의 입장이 되어, 이들이 살아가는 현실, 감각과 심리를 이해해 보아야 한다.
- 결론: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트럼프 개인 혹은 트럼프주의적 이념과 운동은 자신이 처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게다가 이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 자체를 저하시킨다. 트럼프주의는 대중의 역량을 약화시켜 민주주의의 토대를 파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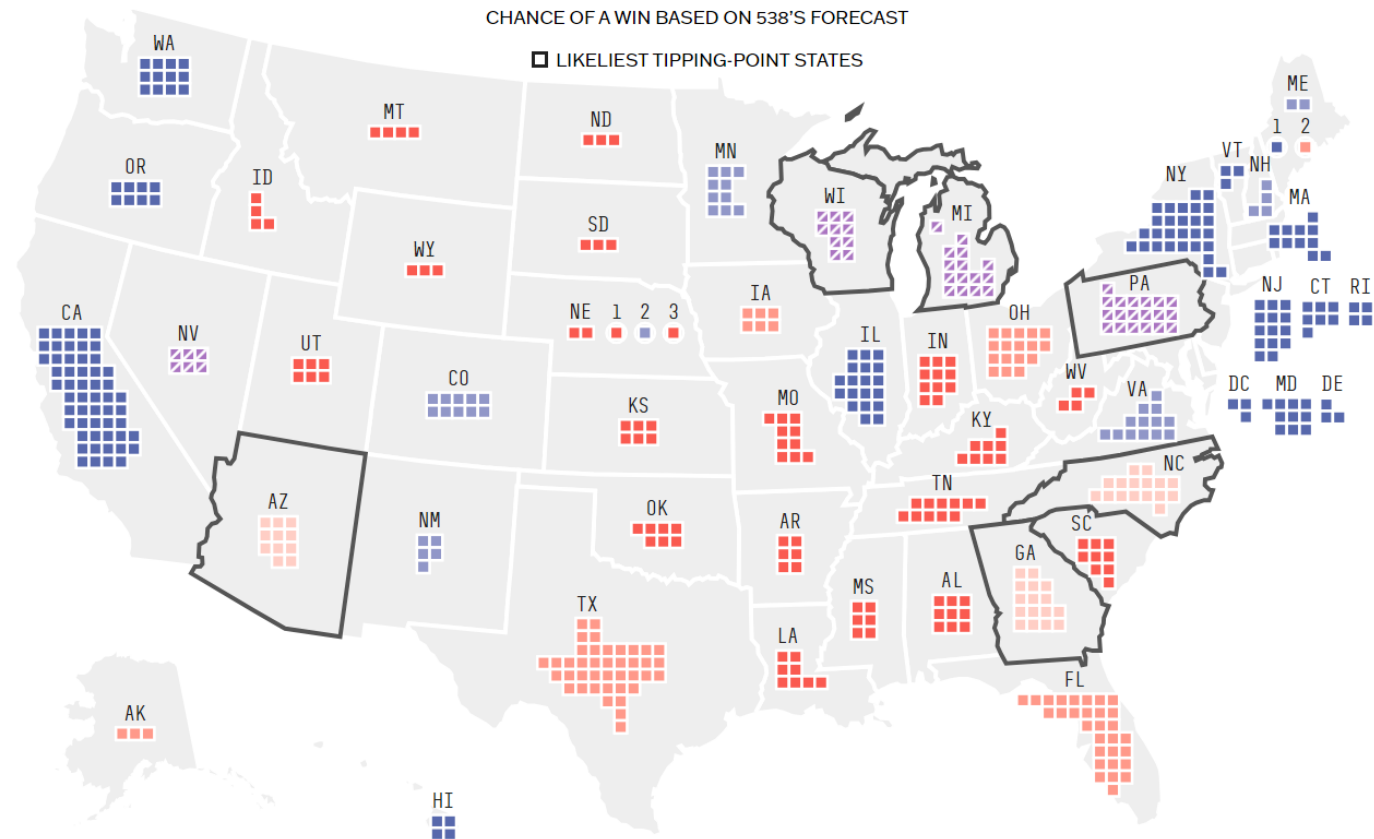
# 1. 미국 대선 들여다보기

# 전국 단위 지지율과 선거인단 확보 현황

(출처: fivethirtyeight.com, 2024년 10월 28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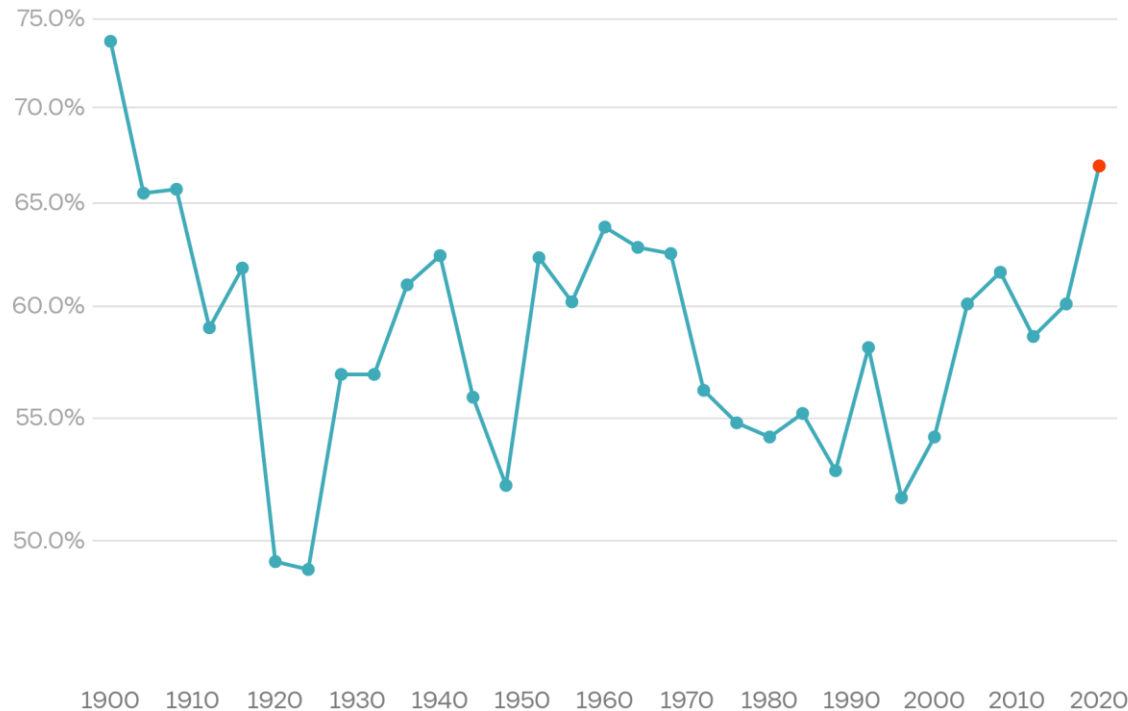
# 주별 선거인단 수 (출처: fivethirtyeight.com, 2024년 10월 28일 기준)



# 투표율이 2020년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

## 2020 voter turnout is estimated to be the highest in 120 years

Turnout rate in US presidential races among the voting-eligible population



- 20세기 이래, 2020년 대선 투표율이 가장 높았다.
- 2024년 대선이 이 기록을 갱신할 것으로 예상됨.
- 선거 흥행의 배경에는 트럼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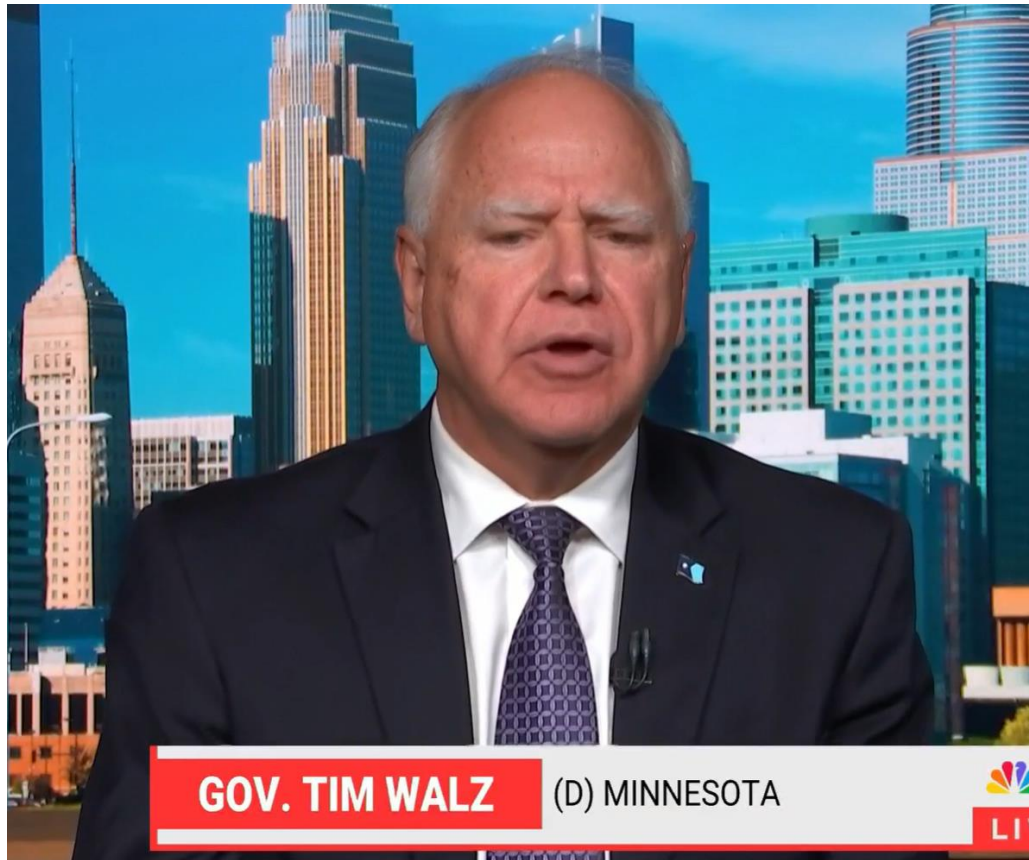
(출처: vox.com)



# 트럼프의 대중적 이미지 (출처: Saturday Night Lives)



# 트럼프와 밴스는 정말 “이상하다(wei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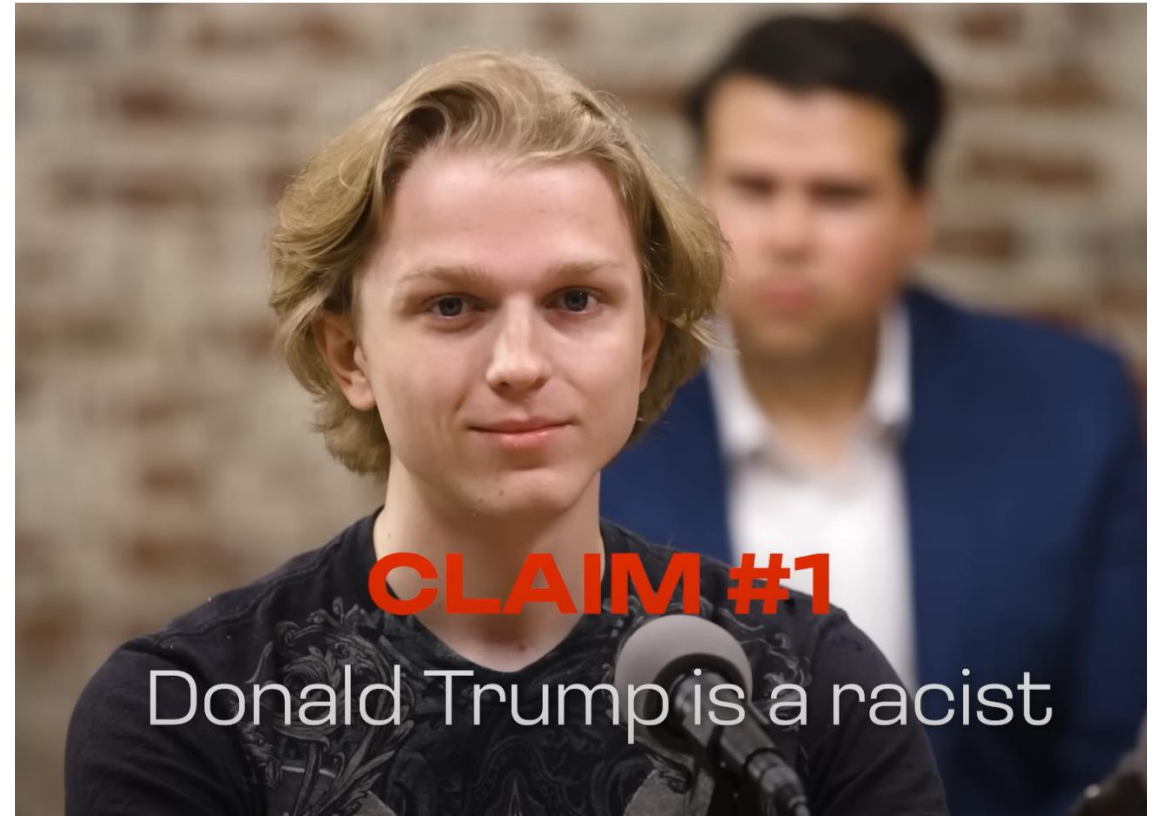
“저는 우리가 분열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갈등 탓에 삼촌과 추수감사절 저녁을 함께 먹을 수도 없게 됐어요. 꼭 필요하지도 않은 이상한 싸움을 하죠. (...) 요즘 사람들은 마치 남성 우월주의 모임에 입후보한 것처럼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출처: MSNBC, morning joe)

# 도널드 트럼프는 인종차별주의자다



Can 1 Woke Teen Survive 20 Trump Supporters? | Surrounded  
조회수 1026만회 · 3주 전

'깨어있는(woke)' 청년 한 명은  
20명의 트럼프 지지자를 이길 수 있을까?  
(출처: Youtube)



# 이제는 일상적인 트럼프의 거짓말

## Person: Donald Trump

### The Issues: Trump's Proposal to Lower Prices by Increasing Energy Production



October 28, 2024

Former President Donald Trump has cited more energy production, specifically drilling for oil and natural gas, as the key to bringing down energy prices, and inflation overall. He promises to “cut energy prices in half within 12 months” of taking office.



Chip Somodevilla/Getty Images

Fact check: Trump, on a lying spree, made at least 40 separate false claims in two Pennsylvania speeches

# 걸려 있는 재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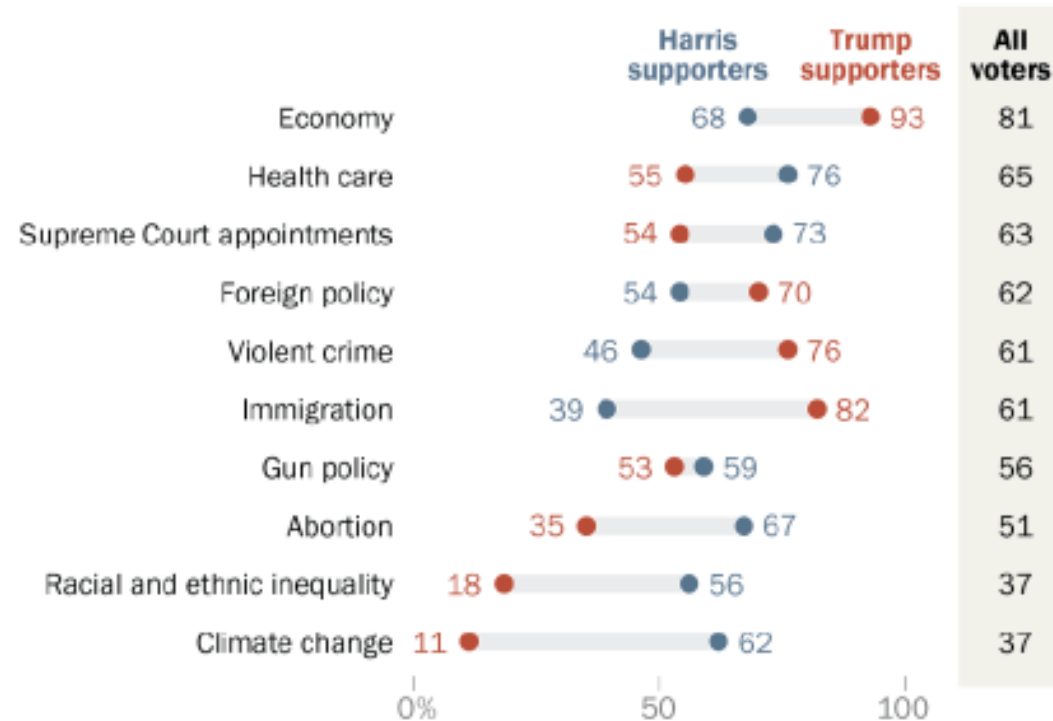


-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
- 기밀 문서 불법 보유 및 사법 방해 혐의
- 대선 결과 번복 시도
- 국회의사당 폭동 관련 혐의

# 미국 유권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

## The economy is the top issue for voters in the 2024 election

% of registered voters who say each is **very important** to their vote in the 2024 presidential el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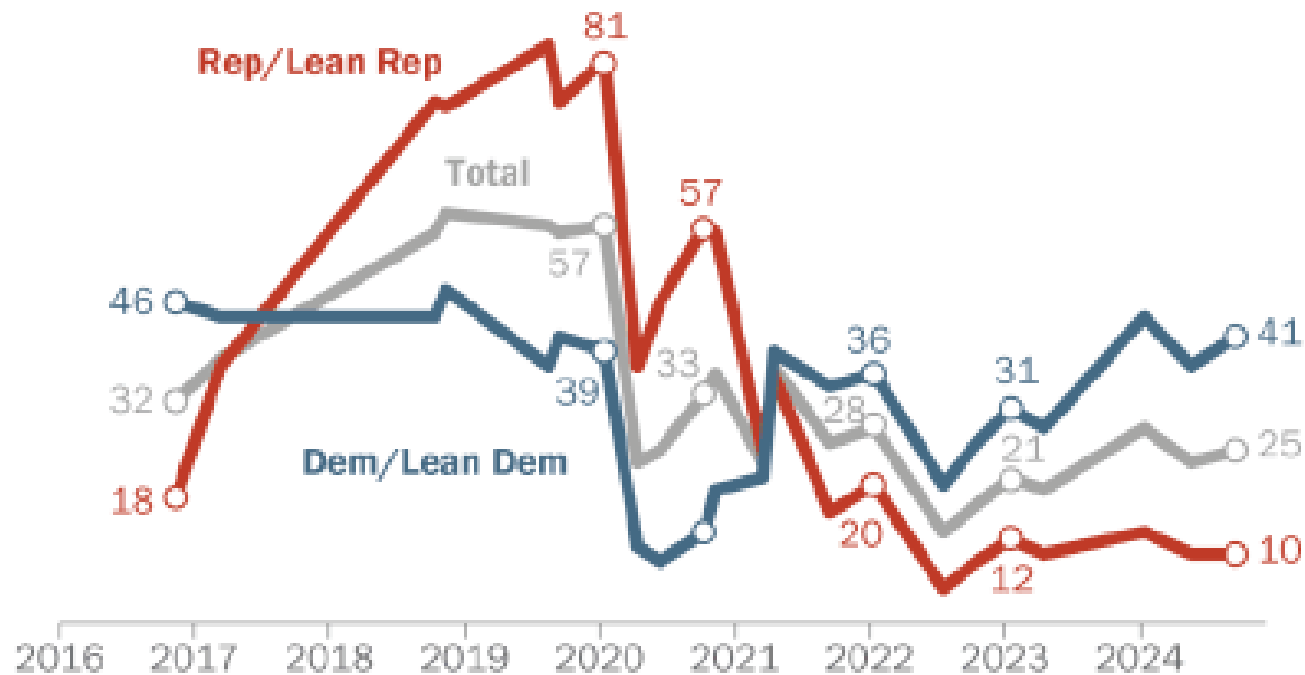
(출처: PewResearch Center, 2024년 9월 초 조사)

- 이슈별 '가장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
- 경제 (81%) > 건강보험 (65%) > 연방대법관 임명 (63%) > 대외 정책 (62%) > 강력범죄 (61%) > 이민 (61%)
- 트럼프 지지자는 경제, 이민, 강력범죄, 대외정책 순
- 해리스 지지자는 건강보험, 연방대법관 임명, 낙태, 기후변화 순

# 미국인은 경제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A quarter of Americans rate economic conditions positively, little changed over the past year**

*% who say economic conditions in the country today are excellent/go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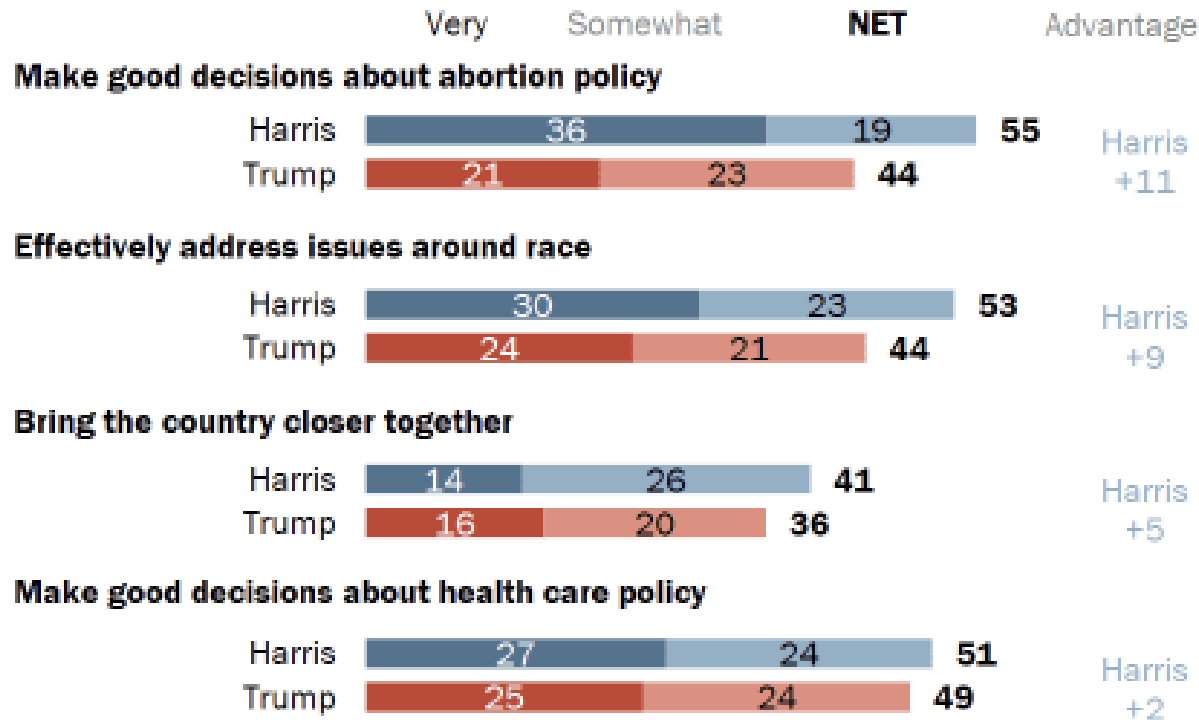
- 경제 상황이 좋다고 답한 비율
- 2017년 32%에서 2020년 57% 찍은 후 2024년 25%로 하락

(출처: PewResearch Center, 2024년 9월 초 조사)

# 각 이슈에서 어느 후보가 더 잘할 것인가?

## Voters are more confident in Trump on economy, immigration; Harris leads on abortion, race

% of registered voters who say they are very/somewhat confident that \_\_\_ can do each of the follow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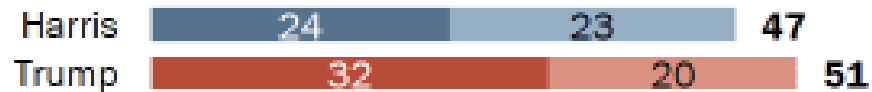
- 이슈별로 해리스/트럼프가 더 잘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을 비교

- 해리스가 앞선 이슈
- 낙태 (11% 앞섬)
- 인종 (9% 앞섬)
- 국민통합 (5% 앞섬)
- 건강보험 (2% 앞섬)



# 각 이슈에서 어느 후보가 더 잘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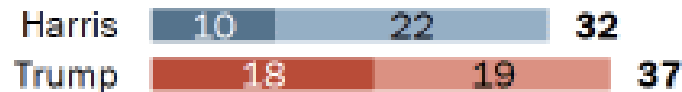
## Effectively handle law enforcement and criminal justice issues



Trump  
+4

- 트럼프가 앞선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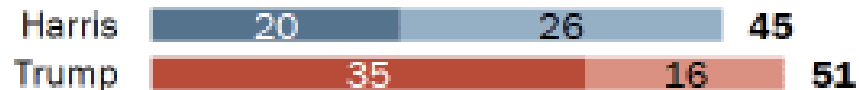
## Reduce the influence of money in politics



Trump  
+5

- 경제 (10% 앞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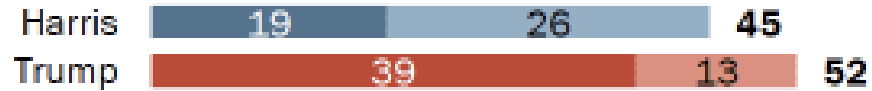
## Make good decisions about foreign policy



Trump  
+6

- 이민 (7% 앞섬)
- 외교 (6% 앞섬)

## Make wise decisions about immigration policy



Trump  
+7

- 부패, 정치에서 돈의 영향력 제거 (5% 앞섬)

## Make good decisions about economic policy



Trump  
+10

- 범죄에 대한 정의 구현 (4% 앞섬)

(출처: PewResearch Center, 2024년 9월 초 조사)

# 해리스의 대중적 이미지 (출처: Saturday Night Lives)



# 2016년 클린턴 후보의 '개탄스럽다' 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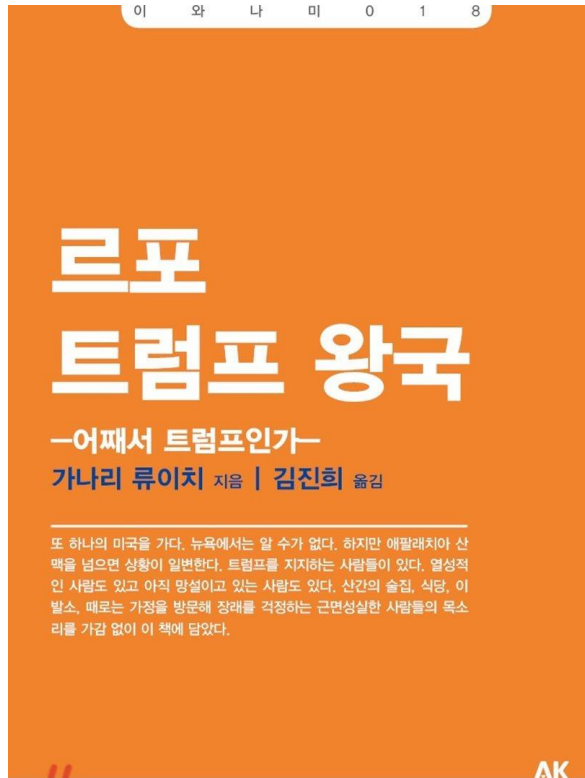
“트럼프 지지자의 절반은 개탄스러운 자들의 모임이다. 그들은 인종차별주의자, 성차별주의자, 동성애혐오자, 외국인혐오자, 이슬람혐오자다.”

# 클린턴은 노동자를 악마화한다!



- 2016년 트럼프 대선광고
- "힐러리 클린턴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악의적으로 악마화한다."

# 트럼프를 지지하는 한 노동자의 호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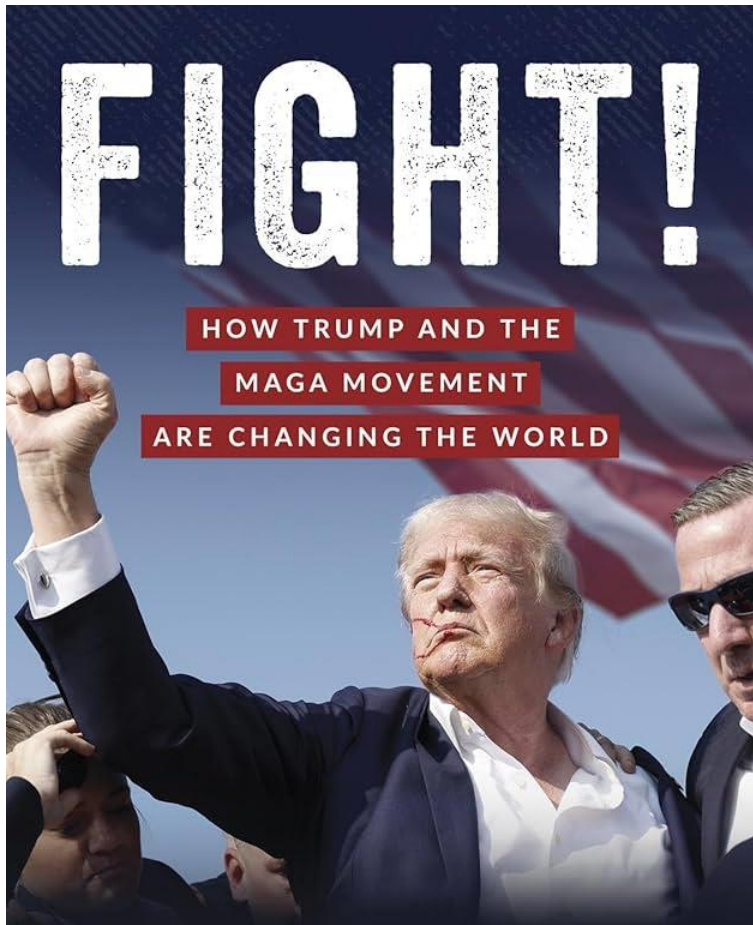
- 병원 노동자 샌디 앨버러즈,
- “일해도 일해도 월급이 오르지 않는 삶이 ‘개탄스럽다’는 것쯤은 우리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하지만 20년 넘게 워싱턴 정계에 있는 힐러리한테만큼은 듣고 싶지 않아. 왜냐하면 힐러리한테는 노동자의 삶에 일부 책임이 있잖아요?”

# 트럼프: 대중의 목소리, 투사, 정의, 복수

(출처: KBS,  
'트럼프 리턴즈')



# 투쟁, 투쟁, 투쟁! (Fight, Fight, Fight!)



『투쟁! 트럼프와 MAGA운동은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가』 / MAGA의 반역이라는 피켓을 든 시위대

# 소결

- 트럼프가 등장했던 2016년 대선 이후, 현재까지도 그에 대한 미국인의 지지가 강력히 존재한다.
- 민주당은 트럼프의 인종차별적, 성차별적 발언 등을 가지고 그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비판하는데, (물론 이 말 자체는 맞으나) 이런 접근은 여론을 흔들지 못한다.
- 되려 민주당은 경제, 외교, 범죄 등의 문제에 강점이 없고 인종 차별, 성차별 얘기만 한다는 인식이 크다. 대중의 현실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에서는 트럼프가 더 잘한다는 여론이다.
- 트럼프주의는 "부당하게 대우받고 배신당한" 대중을 기반으로 투쟁을 조직하려는 정치운동이다.



## 2. 트럼프주의 대중운동의 발생 배경 (1) : 아메리칸 드림의 붕괴

# 물가 상승과 저임금 일자리

## Why do Americans rate the economy the way they do?

Why did you rate national economic conditions the way you did? (%)  
[open-end]

Among those who say conditions are <b>excellent/good</b> (28% of adults)		Among those who say conditions are <b>only fair/poor</b> (72% of adults)	
	%		%
Low unemployment	43	High inflation	28
Inflation is down	18	High cost of living	21
Wage growth	10	Lack of good paying jobs/ Wages low	15
Positive mentions of stock market	9	National debt	7
U.S. outperforming expectations	5	High cost of food and groceries	6
		High cost of housing	6
		High interest rates	6
		Negative mentions of Biden/Democrats	6
		Illegal Immigration	5
		Wealth inequality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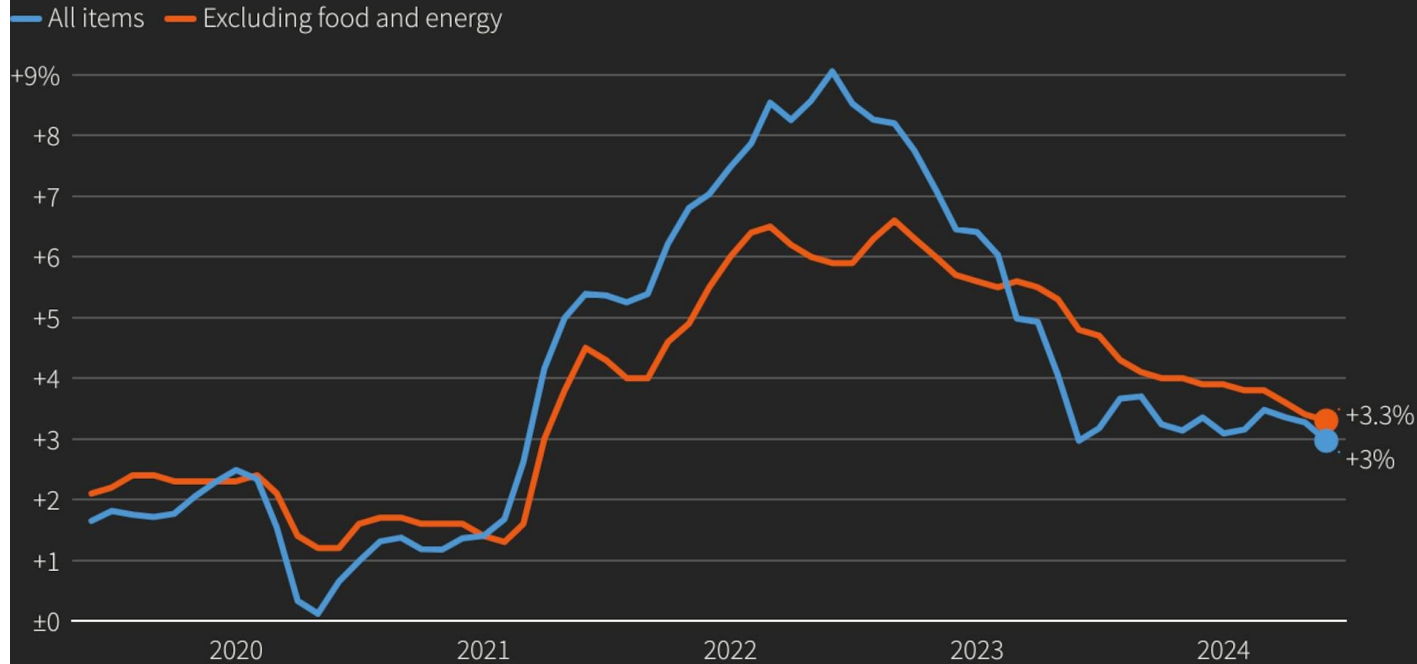
-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고 답한 72%의 사람들은 그 이유로,
- 높은 물가상승, 생활비, 적정한 임금을 주는 일자리 부족, 저임금을 꼽음.
- 경제 상황이 좋다고 답한 28%의 사람들은 그 이유로,
- 실업률이 낮음을 꼽음.

(출처: PewResearch Center, 2024년 1월 조사)

# 2021~23년의 기록적 소비자물가상승률

## Annual change in US Consumer Price Index

In June inflation for all items fell to 3.0%. The 'core' rate that omits products expected to have volatile prices fell to 3.3%.



- 코로나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겹친 게 원인

# 생활수준의 하락 (출처: KBS, '트럼프 리턴즈')



# 일자리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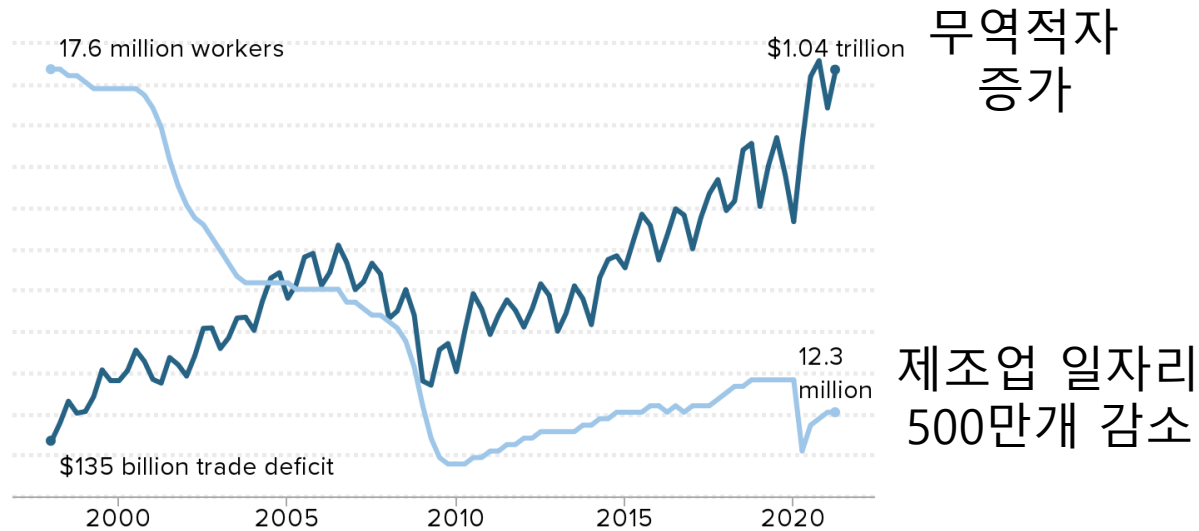
조셉 슈로딘(전직 제철소 노동자),

“이 주변의 블루칼라는 다들 민주당을 지지했었는데, 미국은 자유무역에서 연패하고 있고 제조업도 멕시코로 나가버렸어. 여기에 남아 있는 건 월마트와 K마트로, 딱 나라의 제품을 파는 일뿐이지. 나는 현역 시절 마지막까지 일급으로 200달러(약 22만 4천 원)는 받았어. 근데 지금 서비스업 종사자는 기껏해야 시급으로 12달러(약 1만 3천 원)를 받지. 그 돈으로 젊은이가 생활할 수 있을 리 없잖아? 대학을 졸업할 때 이미 10만 달러(약 1억 1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데, 만족스러운 일자리조차 찾을 수 없다니, 어떻게 된 건지! 난 고등학교 졸업 전부터 돈을 벌었는데...”

# 제조업 일자리 감소, 서비스업 일자리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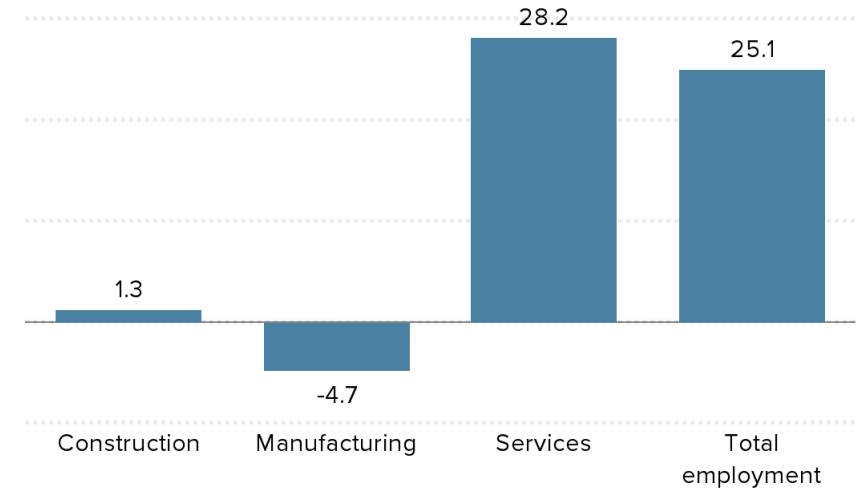
**As trade deficit soared past \$1 trillion, the U.S. lost more than five million manufacturing jobs**

Manufactured goods trade deficit (billions\$) and manufacturing employment (millions), 1998–2021



**As manufacturing lost about five million jobs in two decades, the low-wage service sector gained almost 30 million jobs**

Change in U.S. employment overall and for construction, manufacturing, and service industries (millions), 1998–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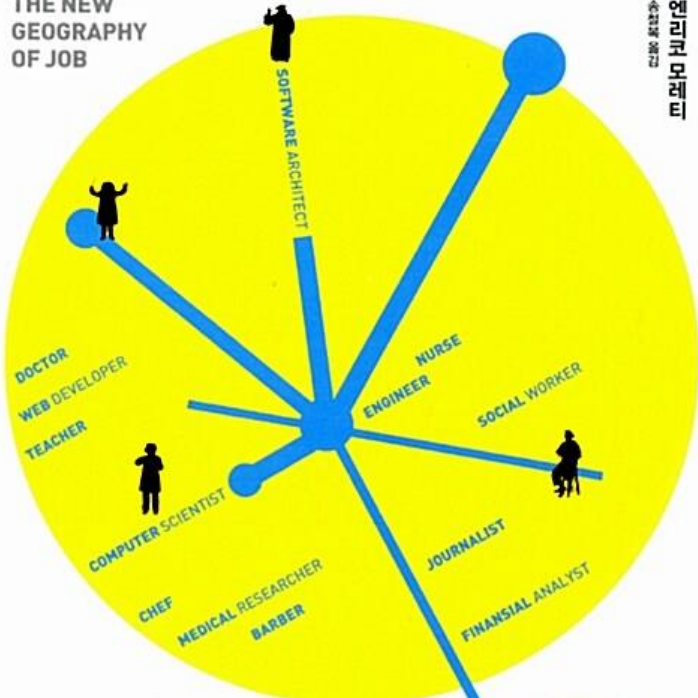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전체

# 교육수준이 중요해졌다

소득을 결정하는 일자리의 새로운 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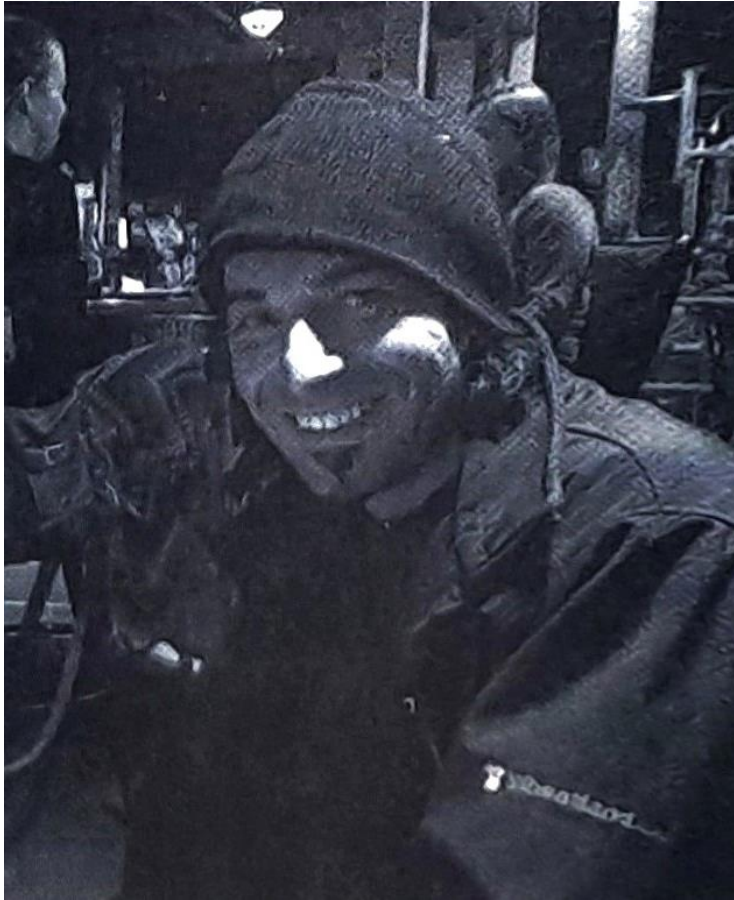
## 직업의 지리학

THE NEW  
GEOGRAPHY  
OF JOB



- 중소도시 및 지방의 제조업 쇠퇴
- 대도시 중심 서비스업 발전
- 비(非)제조업은 고부가가치 업종(전문직)과 저임금 단순서비스직으로 양극화
- 교육수준이 소득 결정에서 중요해졌으나, 높은 교육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가?

# “성장 가능성이 없는 일(dead-end jo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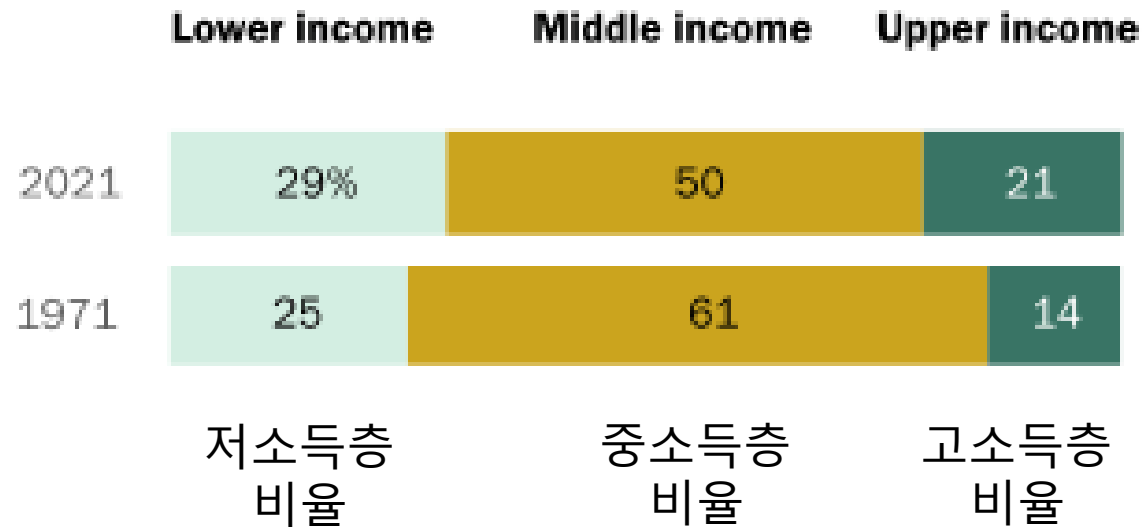
- 로니 리카도니(공장 노동자),  
“대학에서 항공관제를 전공하고 연방항공국에 원서를 제출했지만 8년이 지났고, 이 모양 이 꼴이야. 대학 학비로 7만 달러(약 7,800만 원)를 대출받았는데 쓸모 없게 됐어. (펜스 공장에서 일하면서는) 여기서는 꼼짝도 할 수가 없어. 꼼짝도 못한 채 성장 가능성 없는 일을 하고 있어. 데드 엔드 잡, 데드 엔드 잡!”



# 중산층의 붕괴

## Share of adults in U.S. middle class has decreased considerably since 1971

% of adults in each income ti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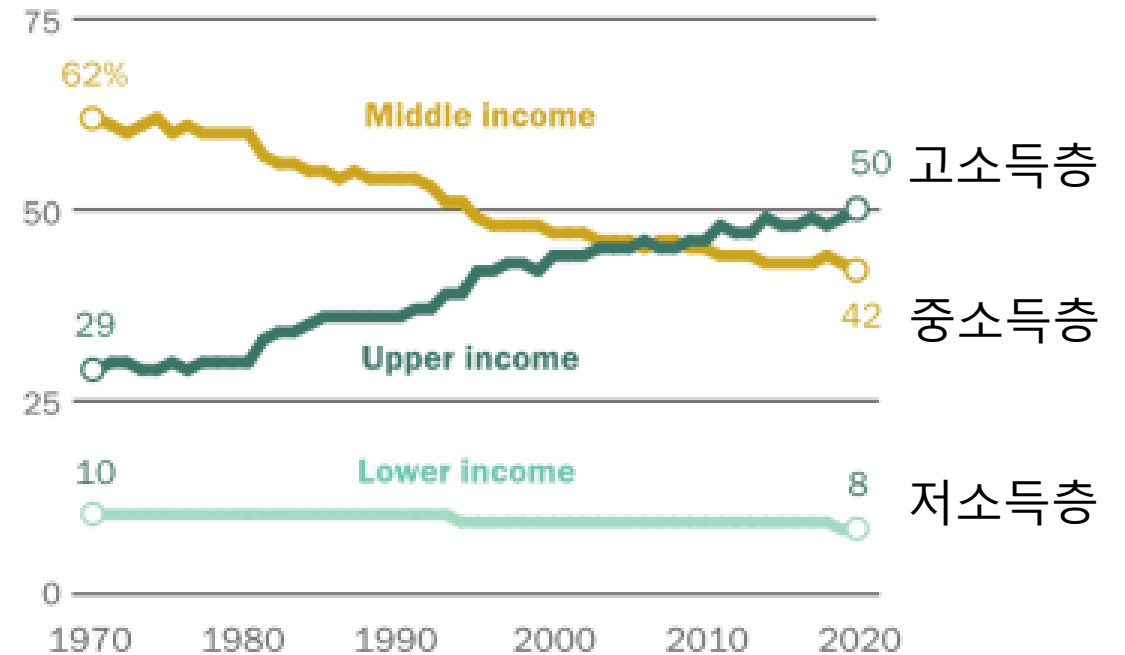


(출처: Pew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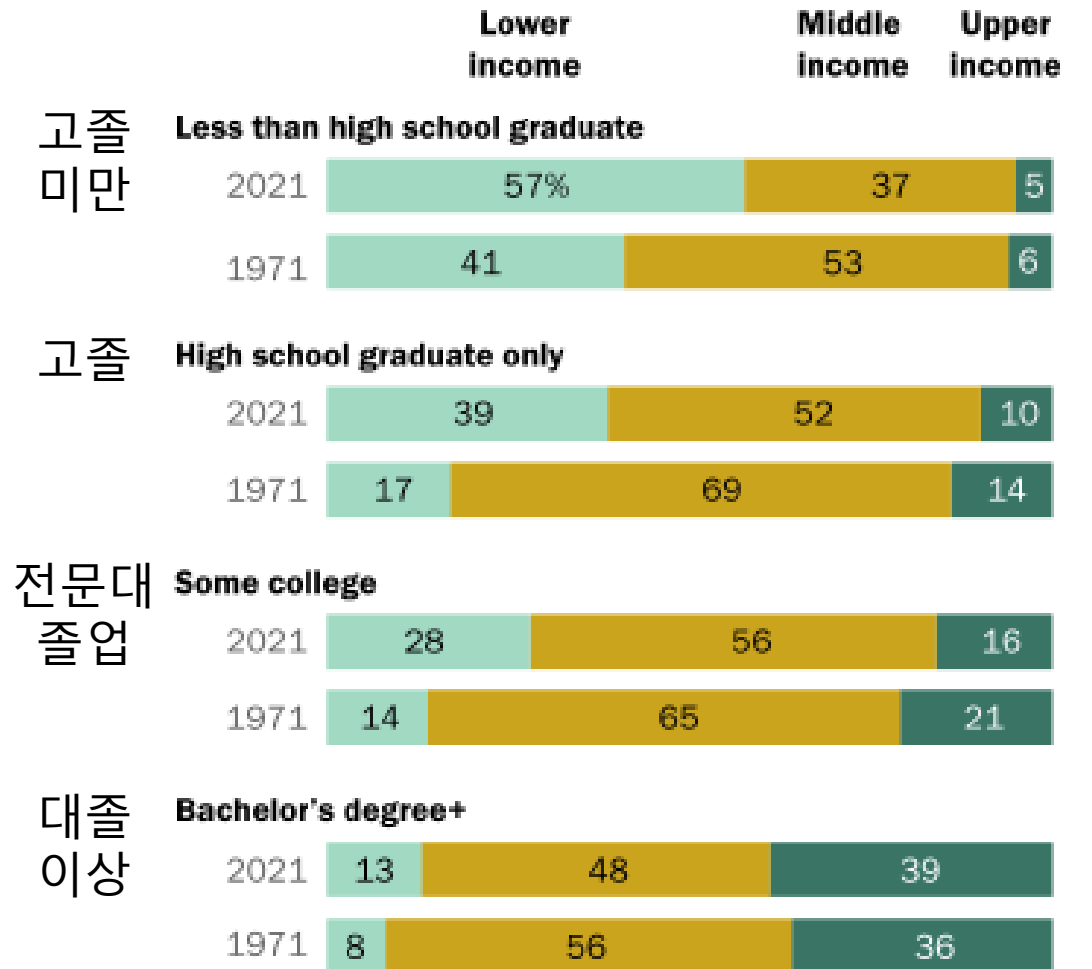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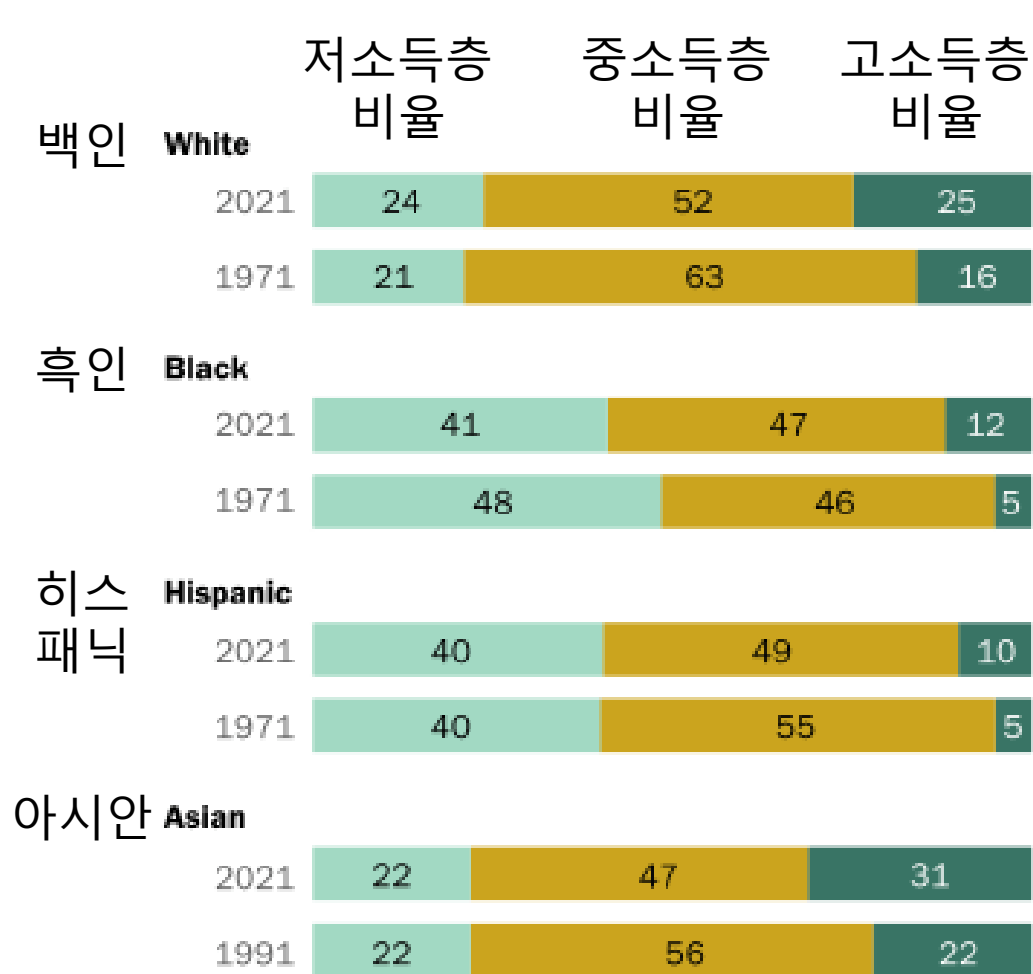
각 소득층이 전체 소득에서 점하는 비율

## Share of aggregate income held by U.S. middle class has plunged since 1970

% of U.S. aggregate household income held by lower-, middle- and upper-income househol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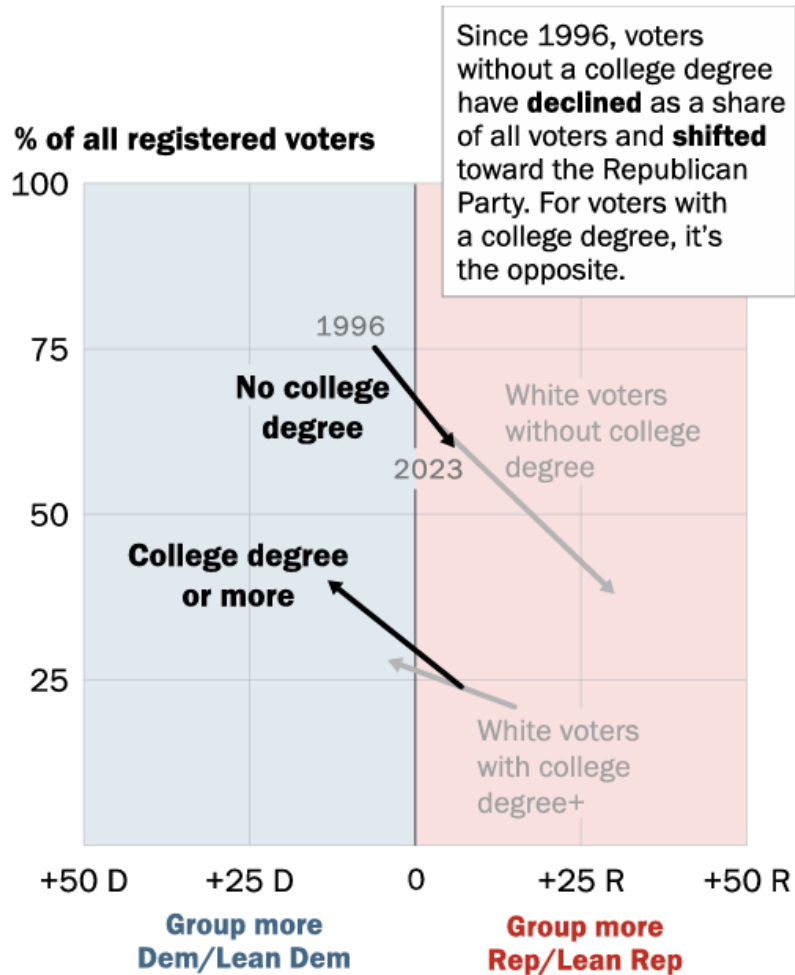


# 인종별, 교육수준별 차이 (출처: PewResearch Center)





# 양당의 지지기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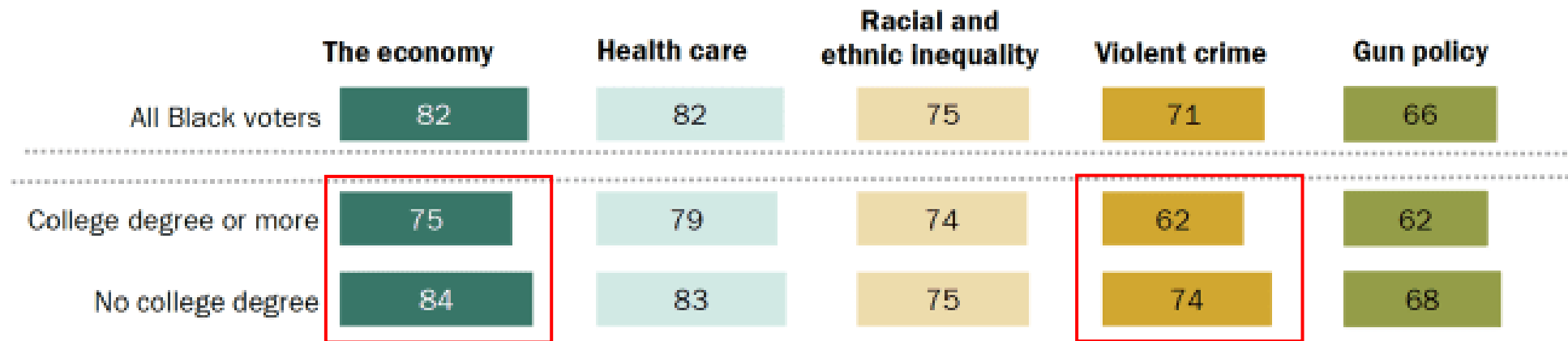
- 1996~2023년 사이에
- 대학 학위가 없는 집단은 민주당에서 공화당 지지로 이동
- 대학 학위가 있는 집단은 공화당에서 민주당 지지로 이동
- 특히 대학 학위가 없는 백인 집단의 공화당 지지로의 이동이 매우 컸다.
- 트럼프의 지지기반이 "백인 노동자계층"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

(출처: PewResearch Center)

# 히스패닉과 흑인 내에서도 차이가 있다

## Economy, health care among top issues for Black voters in presidential election

*% of Black registered voters who say each of the following issues is very important in making their decision about who to vote for in the 2024 presidential election*



- 흑인 내에서도 교육수준이 낮으면 경제, 강력범죄 이슈를 더 중요하다고 본다. (히스패닉도 비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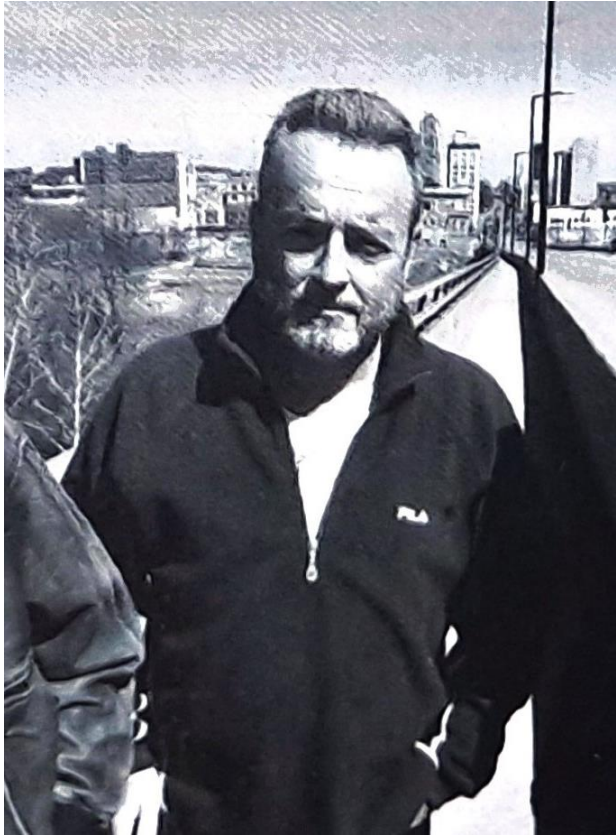
(출처: PewResearch Center, 2024년 9월 조사)

# 소결

- 트럼프주의적 대중운동의 부상에는 여러 경제적 요인이 있다. 제조업의 쇠퇴, 양극화가 오랜 기간 진행되어 온 위에, 최근의 급격한 물가상승이 겹쳤다.
- 이런 가운데 2010년대부터 교육수준이 공화당/민주당 지지를 가르는 핵심 요인이 되었다.
- 절대적인 생활수준보다, 중산층에서 저소득층으로 하락한다는 감각이 중요했다. 이 점에서, 인종상으로는 흑인이나 히스패닉보다 백인이 더 큰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다.
- 그러나 단순히 인종별로 지지가 나뉜다고 말할 수는 없다. 백인이 아닌 인종 중 히스패닉과 아시안의 트럼프 지지가 꽤 있다.

### 3. 트럼프주의 대중운동의 발생 배경 (2) : 세계화주의자와 민주당 에 대한 반감

# “돈을 노동자에게 지불케 하는 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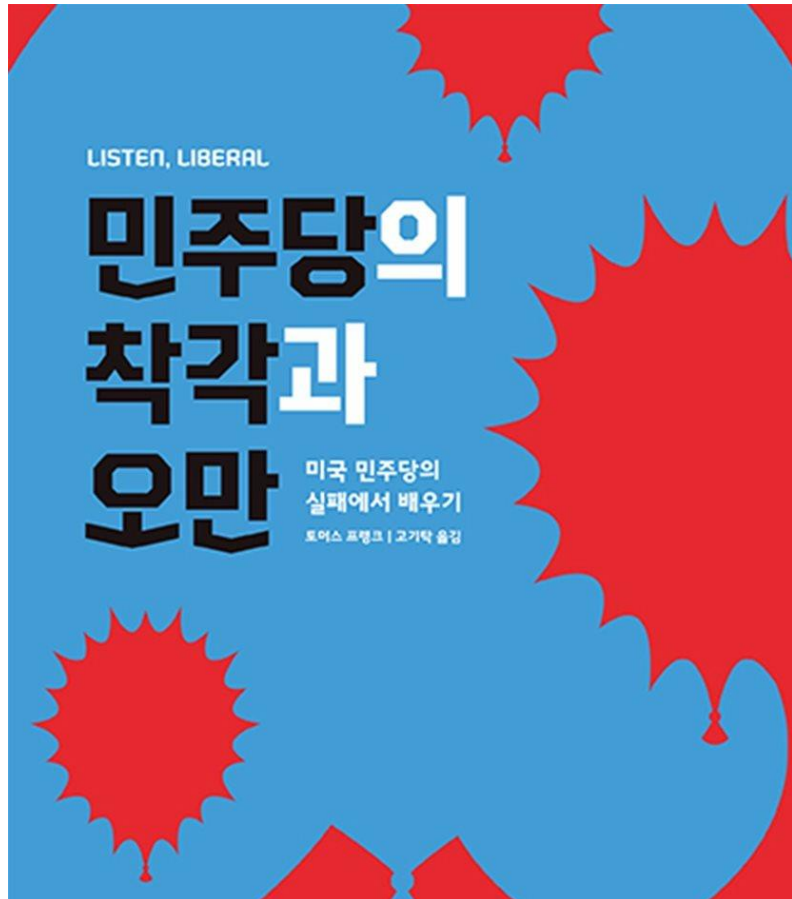


- 데이비드 에이(전직 보안관),

“대략 10~15년 전부터 민주당은 노동자한테서 긁어모은 돈을, 사실은 일할 수 있는데 일하려고 하지 않는 놈들에게 나눠주는 정당으로 바뀌었어. 돈을 노동자 계급에게 지불케 하는 정당이 된 거야. 불법 이민자와 일하지 않는 놈들의 생활비를 우리가 지불하고 있다는 건 사실 다들 진작부터 눈치채고 있었어. 문제라는 것은 알았지만 우리에게 여유가 있어서 생활에 별다른 영향이 없었을 때는 그냥 방치했었지. 그런데 수입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고, 더는 예전 같은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많은 중류 계급이 ‘더는 남의 생활비까진 지불하지 못하겠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어.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한계에 달하려는 시점에 트럼프가 등장한 거야.”



# 민주당은 세계화주의자 엘리트 정당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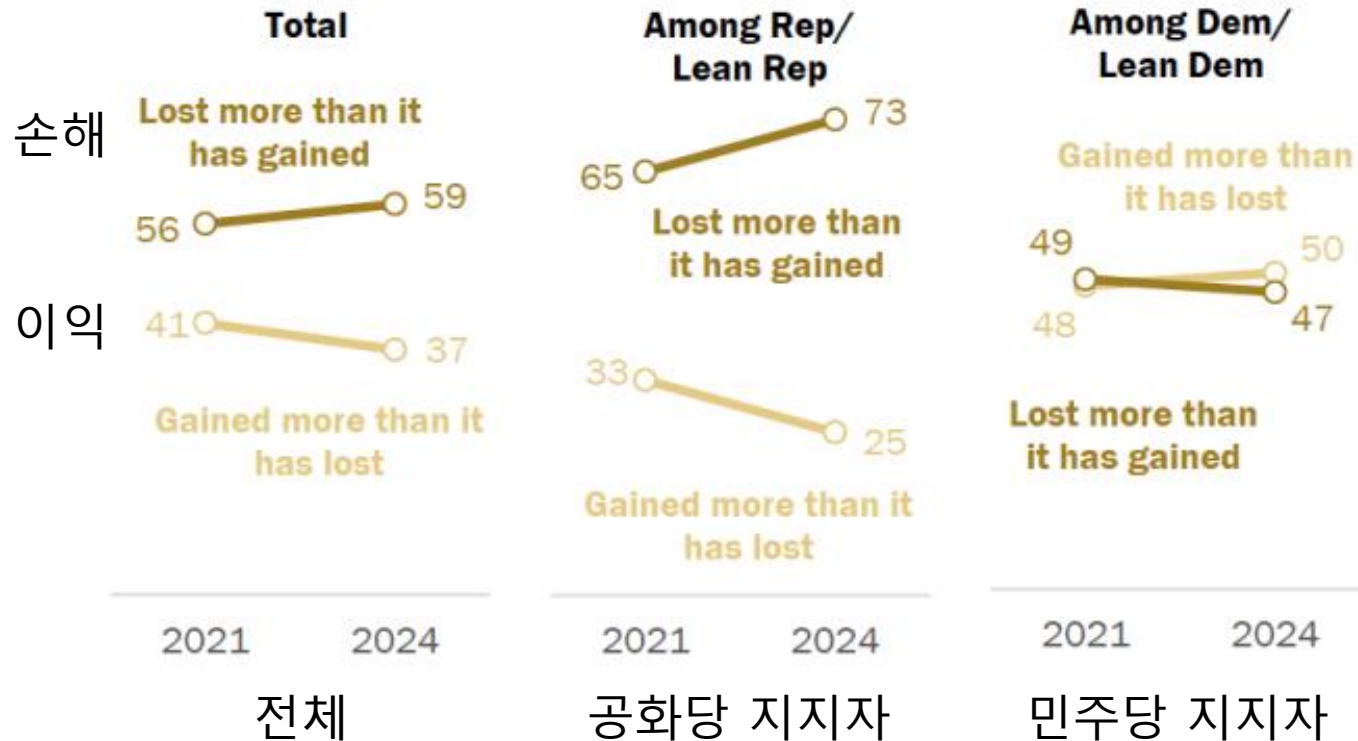


- 민주당이 전통적 지지기반인 미국 노동자계급을 외면하고, 세계화주의자 엘리트와 이민자의 연합으로 변모했다.
- 『르포 트럼프 왕국』에 나오는 노동자들 대다수가 오랜 민주당 지지자이자 노동조합원이었으나, 2016년에 트럼프 지지로 변경함.

# 자유무역에 대한 여론 (출처: PewResearch Center)

## Republicans are more likely than Democrats to say the U.S. has lost more than gained from increased trade

% who say the U.S. has \_\_\_ from increased trade with other nations



- 공화당 지지자의 73%는 무역 증가가 미국에 손실을 준다고 답함.
- 민주당 지지자도 47%는 무역 증가가 미국에 손실을 준다고 답함. (50%는 이익을 준다고 답함.)

#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 하지만... (출처: KBS, '트럼프 리턴즈')



# 노동조합은?

- 미국 노동조합의 총연맹 중 가장 큰 AFL-CIO 지도부는 해리스 지지를 선언함.
- 이유는 트럼프의 정책은 반(反)노동적인 반면, 바이든-해리스의 정책은 친(親)노동적이기 때문. (최저임금 인상, 초과근무수당 인상, 노동조합의 권한 확대 등)
- 또한, 트럼프는 미국 노동자계급에 유리한 반(反)세계화 정책을 말로만 약속했지 실행하지 않았으며, 이를 실제로 이룬 것은 바이든 행정부이기 때문. (가령 AFL-CIO의 성명은 트럼프가 '한국'과의 반(反)노동적 무역협정을 개선하지 못했다고 비판)

# 노동조합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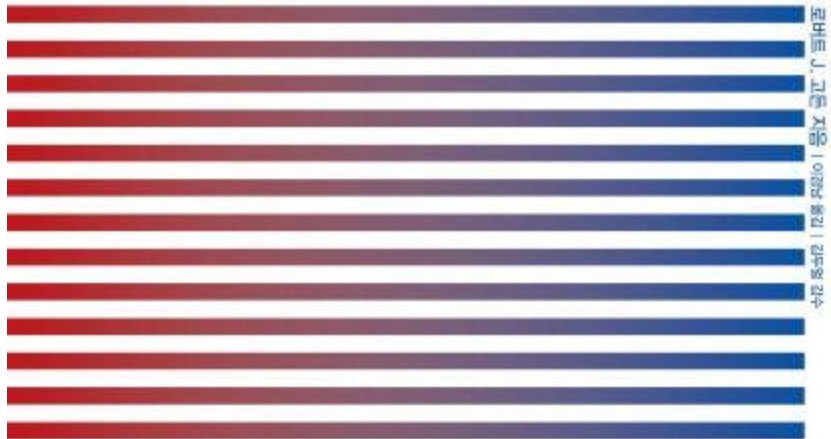
- 미국의 10대 대형노조 중 하나인 국제트럭노동자연합은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 지지를 철회함. 조합원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지지 60% 대 해리스 지지 34%가 나왔기 때문.
- 해리스를 지지한 전미자동차노조(UAW)에 맞서는, '트럼프 지지하는 자동차노동자 모임' 조직. "바이든과 해리스는 전기차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전기차 생산에는 내연기관차보다 더 적은 노동력이 필요하다. 자동차 노동자가 전기차 생산을 지지할 이유가 없다. 전기차 배터리의 50%는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다."
- 트럼프, "내가 집권하면 미국인들이 파업을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될 것" (미시간 유세에서의 발언)

# 상실한 과거의 복구 (출처: KBS, '트럼프 리턴즈')



# 미국은 찬란했던 과거로 회귀할 수 있을까?

## 미국의 성장은 끝났는가



The Rise and Fall of  
American Growth

경제혁명 100년의 회고와  
인공지능 시대의 전망

- 70년대부터 제조업 생산성의 상승이 한계에 이르며 비용 문제 발생.
- 전문기술과 금융 등 고부가가치 부문에 특화하고, 제조업은 해외이전하여 비용 절감, 수입으로 물가 하락.
- “자유무역의 수혜는 넓게 미치지만, 손실은 특정 집단에 집중된다.”
- 국가가 개입하여 무역을 차단하면, 미국경제가 60년대의 고도성장기로 돌아갈 수 있는가?

# 소결

- 자유무역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 민주당이 기존 노동자계급을 버리고 세계화주의자 엘리트와 이민자의 연합이 되었다는 비판이 있다.
- 여론에 반응하여, 민주당은 친노조 친노동 정책을 강조하고, 바이든 행정부는 제조업을 미국으로 되돌리는 정책(리쇼어링)을 펼쳤다. 이에 호응해 노동조합 지도부는 이번 대선에서 해리스 지지를 선언하였으나, 일반 조합원이나 비조합원 노동자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 앞서 봤듯, 친노조 친노동 정책 vs 경제정책의 큰 방향성 전환의 구도에서 후자가 우세한 상황이다.
- 그러나 영광스러운 과거로 회귀가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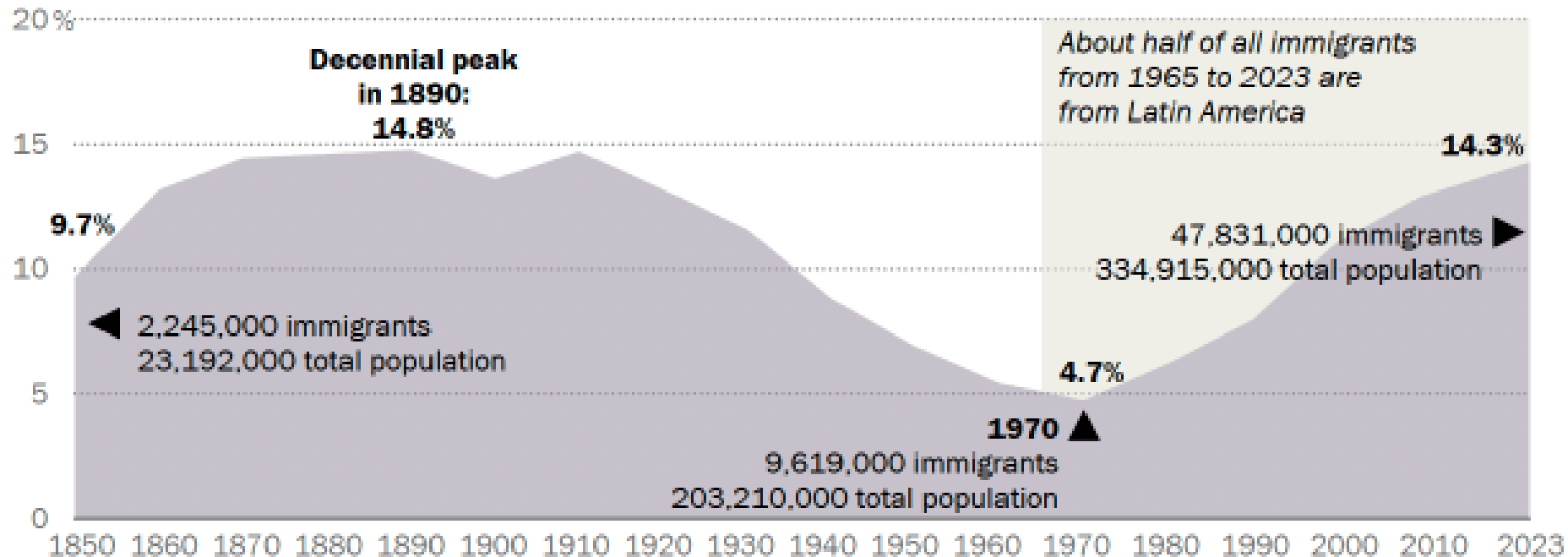
# 4. 트럼프주의 대중운동의 발생 배경 (3) : 남부국경 문제

# 이민자 증가

- 역사적 고점에 근접한 인구 중 이민자 비율

## Immigrant share of the U.S. population, 1850-2023

*% of U.S. population that is foreign bor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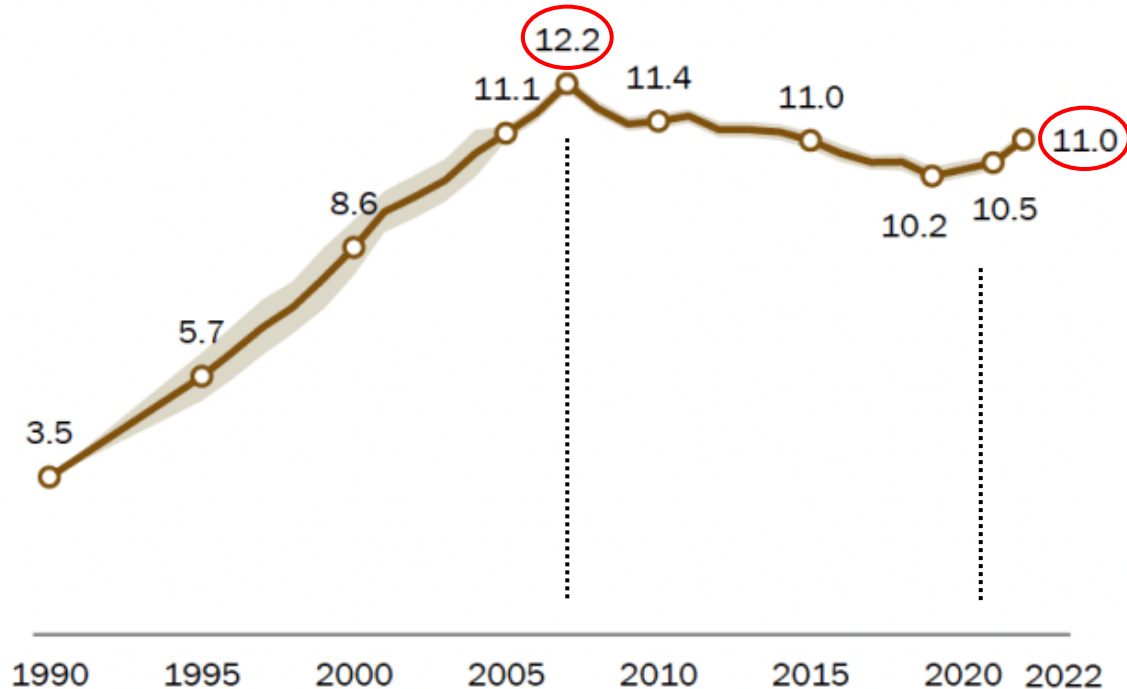


(출처: PewResearch Center)

# 미등록 이민자 수

**The number of unauthorized immigrants in the U.S. grew from 2019 to 2022**

*Unauthorized immigrant population in the U.S., in millions*



(출처: PewResearch Center)

- 라틴아메리카의 경제위기 요인이 중요하다는 분석.
- (앞 장의) 이민자와 미등록 이민자 모두 최근에는 히스패닉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아시안이 많음.

# 남부국경 문제 (출처: KBS, '트럼프 리턴즈')



# 이민자 관련 여론 (출처: PewResearch Center, 2024년 8월 조사)

## • 다음 정책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답변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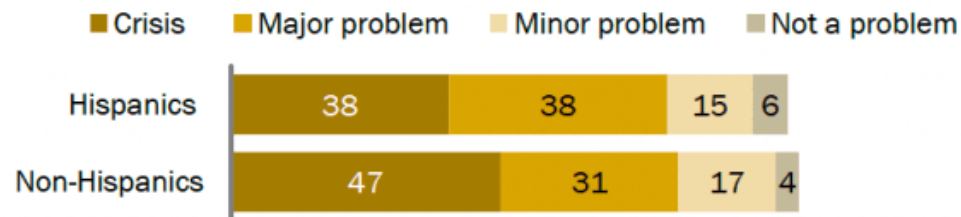


# 히스패닉조차 국경 문제를 심각하게 여김

(출처: PewResearch Center, 2024년 1월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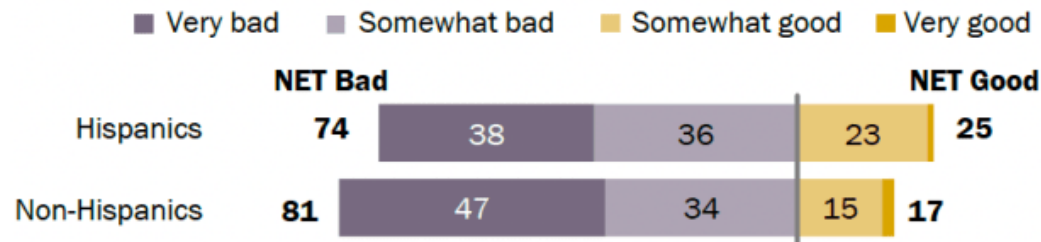
## Most Latinos view the border situation as a 'crisis' or a 'major problem'

% who say the large number of migrants seeking to enter the U.S. at the border with Mexico is (a)\_\_\_for the U.S.



## ... and most say the government is doing a bad job dealing with it

% who say the U.S. government is doing a \_\_\_ job dealing with the large number of migrants seeking to enter the U.S. at the border with Mexico



- 히스패닉 중 국경 문제를 '위기' 상태라 보는 비율 38%, '주요 문제'라 보는 비율 38%

- 히스패닉 중 정부가 국경 문제에 잘못 대처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 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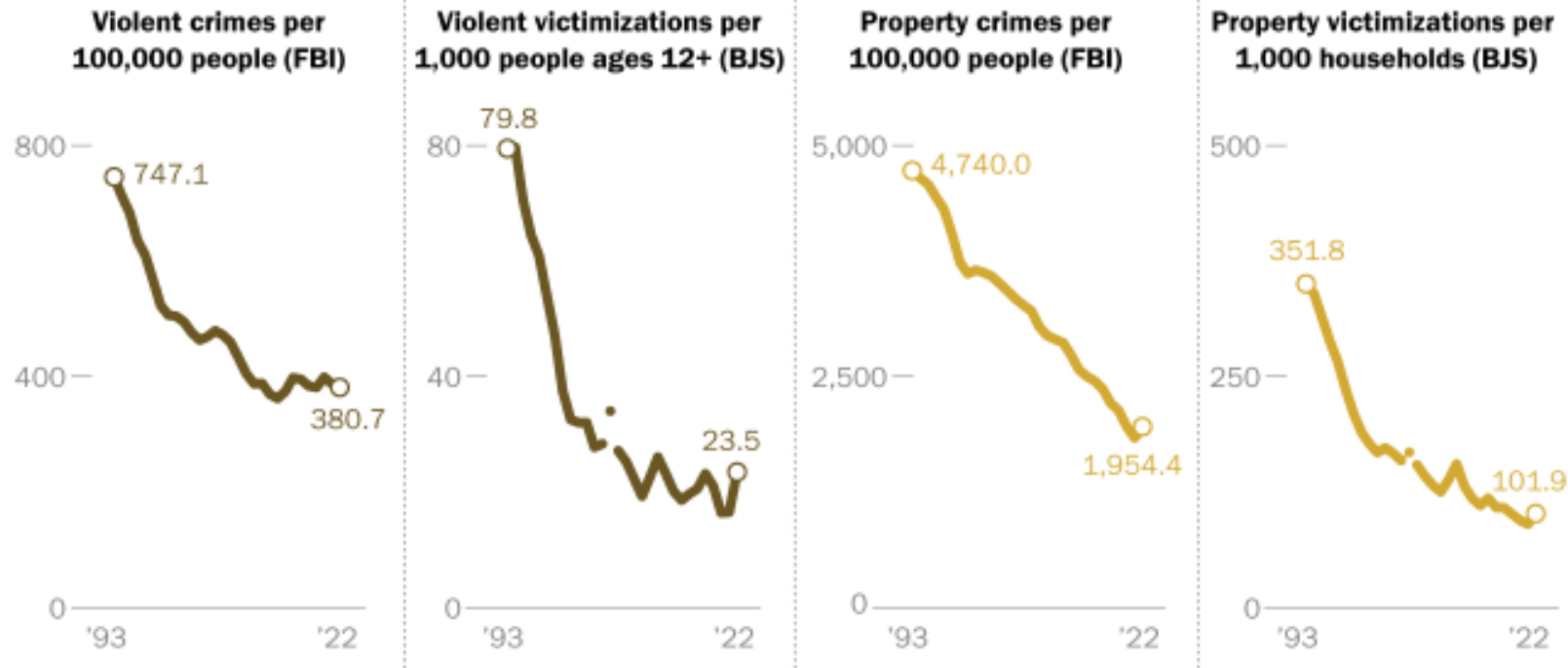
# 일자리 문제

- 수많은 연구가 미등록 이민자와 미국 시민권자의 일자리 영역이 겹치지 않으며, 대규모 추방 시 그런 업종의 노동력 부족이 발생할 것임을 지적함. 그러나 아래와 같은 현실은 존재.
- 건설업체 사장 위델의 사례. 평균 시급 20달러(약 22,000원)으로 노동자를 고용했으나, 의뢰업자가 인건비가 너무 높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 노동자를 전원 해고할 수밖에 없었음. 사정을 확인해보니, 의뢰업자가 절반의 시급에 미등록 이주자를 사용.
- “왜 미국인 억만장자는 같은 미국인 업자를 쓰지 않고 더 싼 불법 이민자를 쓰는 걸까? 공화당 기득권층에도 책임이 있어. 은행원 같은 고학력 엘리트는 일자리를 뺏길 걱정이 없겠지만, 우리들한테는 심각한 문제라고.” (『르포 트럼프 왕국』)

# 범죄 문제: 미국의 강력범죄율 하락

**U.S. violent and property crime rates have plunged since 1990s, regardless of data source**

*Trends in U.S. violent and property crime, 1993-2022*



- 왼쪽부터
- 인구 십만 명 당 강력범죄 건수
- 12세 이상 1,000 명 당 강력범죄 피해자 수
- 인구 십만 명 당 재산범죄 건수
- 1,000 가구 당 재산범죄 피해자 수

(출처: PewResearch Center)



# 미등록 이주자의 범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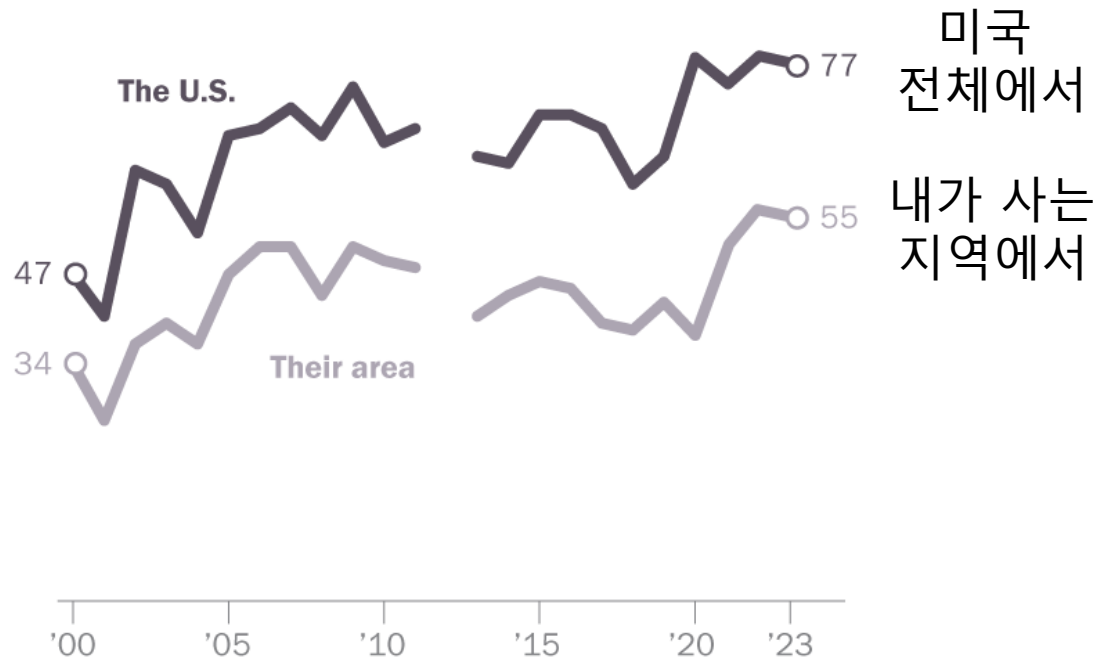
- 당국에 따르면, 미등록 이주자의 범죄율은 미국 시민권자의 범죄율보다 훨씬 낮음.
- 그런데 범죄가 더 늘어난다는 인식은 강해짐.

# 범죄 관련 여론

범죄가 더 늘었다고 답한 비율

**Americans tend to believe crime is up nationally, less so locally**

*% of U.S. adults who say there is more crime in \_\_\_ than there was a year ag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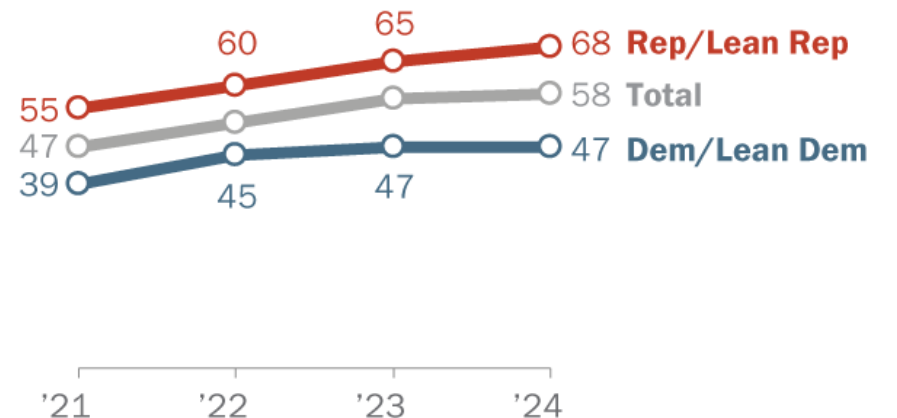
미국 전체에서

내가 사는 지역에서

정부가 범죄 대응을 제1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답한 비율

**Since 2021, concerns about crime have grown among both Republicans and Democrats**

*% who say reducing crime should be a top priority for the president and Congress to address this year*



(출처: PewResearch Center)

# 최근 급속히 가시화된 마약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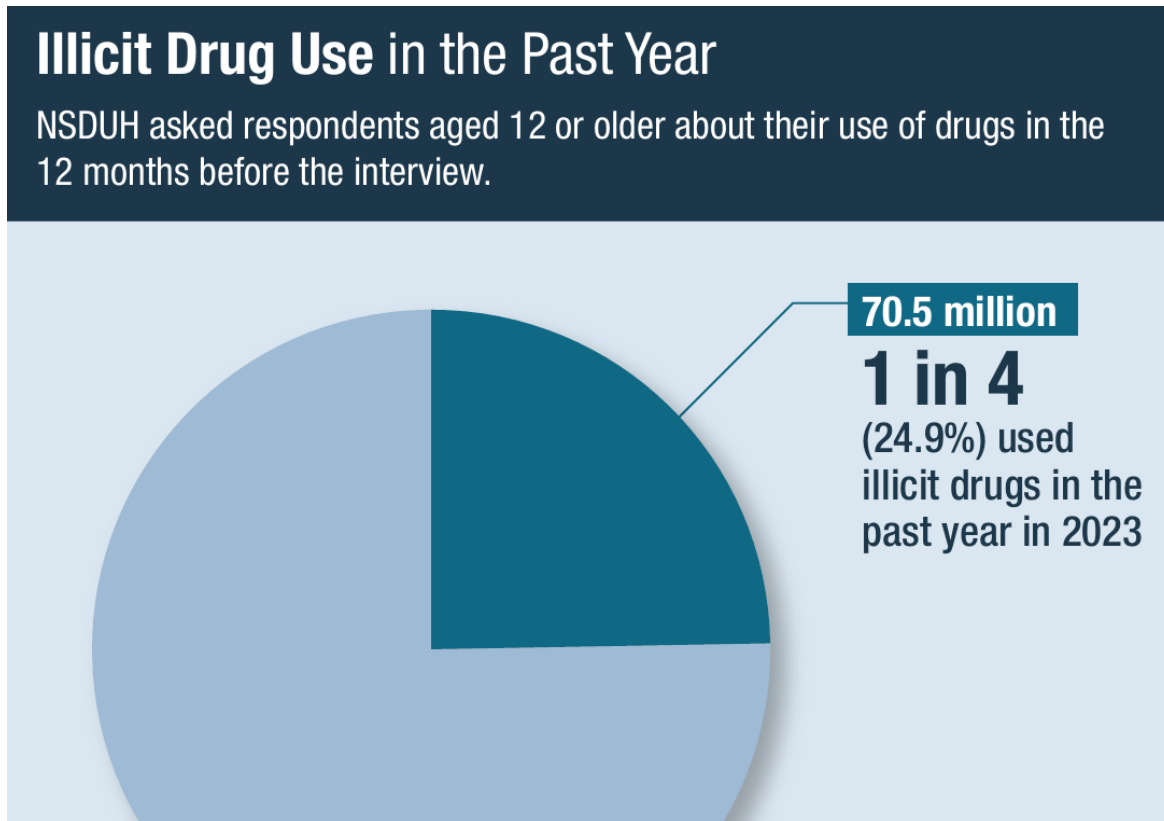
(출처: KBS, '세계는 지금' 300회)



# 불법약물 사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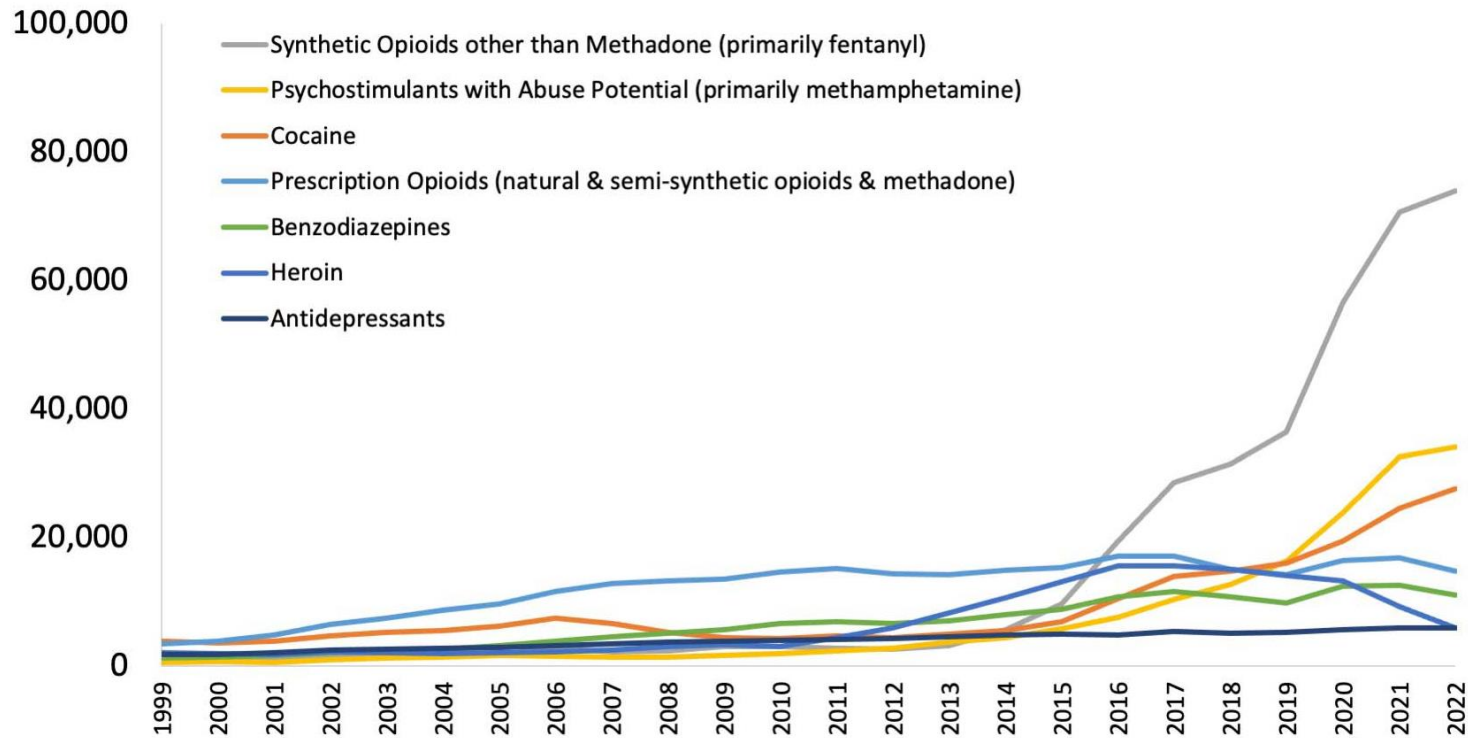
(출처: National Survey on Drug Use and Health)

- 2023년에 인구의 24.9%, 7,050만 명이 불법 약물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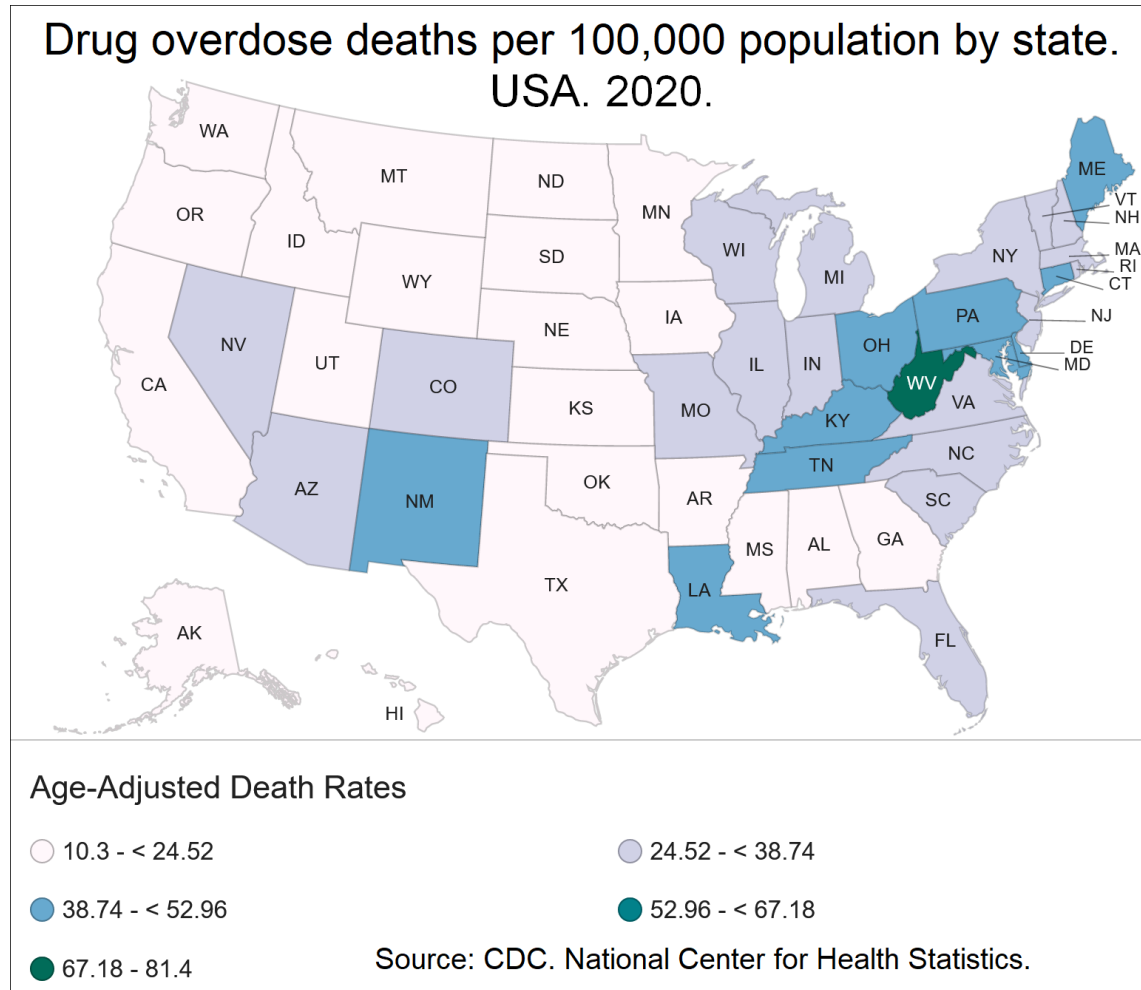
# 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자 수 급증

**Figure 2. U.S. Overdose Deaths\*,  
Select Drugs or Drug Categories, 1999-2022**



- 2010년대 중반부터 급증
- 합성 오피오이드 (펜타닐)가 원인

# 지역별 약물 과다복용 사망률



- 특히 러스트벨트 지역에서 2010년대 사망률이 급증, 상승 속도가 도시 지역을 앞지름.
- 지방은 도시보다 의료 접근성이 안 좋아 문제가 더욱 심각함.

# “일이 있으면 마약에 손대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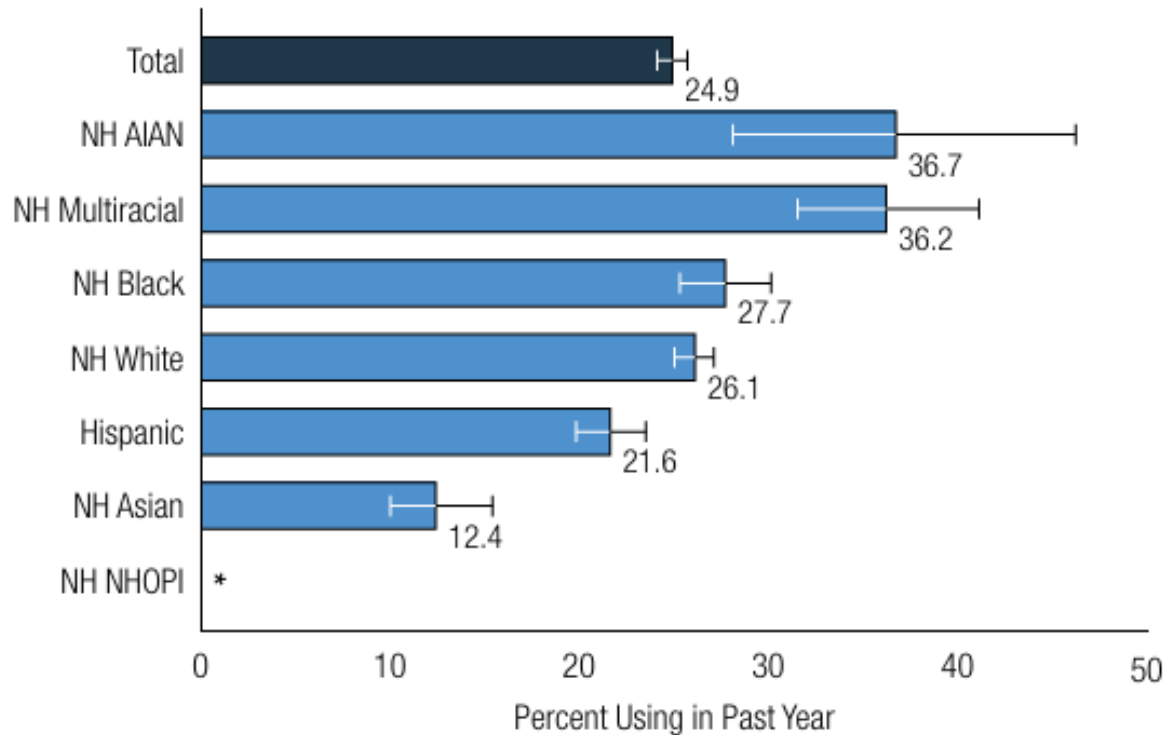
- 데이나 카즈맥(식당 종업원),

“제 동생은 2008년에 제철소가 폐쇄되면서 일자리를 잃었어요. 재취직이 잘 안 돼 점점 집에만 틀어박혀 있게 됐어요. 헤로인을 손에서 놓지 못하게 된 것도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일이 있으면 아무도 헤로인 따위에 손대지 않아요. (...) 남동생이 죽은 건 식당이 문을 닫아 엄마와 내가 실직한 5일 후였어요. 충격적인 사건이 단 5일 만에 집중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솔직히 말해 동생이 죽기 전까지는 정치에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투표조차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랬던 제가 트럼프를 응원하는 데 나선 거예요.”

# 인종별 불법약물 사용률, 과다복용 사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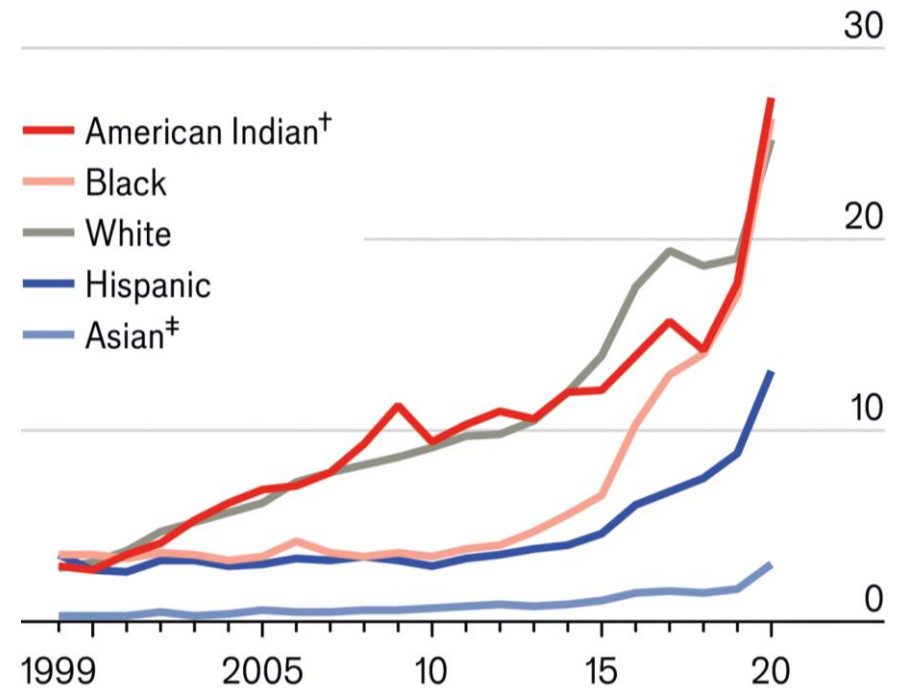
- 둘 다 아메리칸 인디언, 흑인, 백인, 히스패닉, 아시안 순

**Figure 14. Past Year Illicit Drug Use: Among People Aged 12 or Older; by Race/Ethnicity, 2023**



**Opioid-overdose deaths by race**

United States, per 100,000 people\*





# 마약 문제 관련 사실

- 미국에서 소비되는 불법약물의 대부분(특히 펜타닐)은 남부국경을 통해 수입됨.
- 마약 압수 건의 73%는 합법적 입국지점에서 발생.
- 펜타닐의 주요 공급자는 멕시코 카르텔.
- 미국에서 펜타닐을 밀수하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86%는 미국 시민권자.



# 장벽을 두텁게 쌓으면, 해결할 수 있을까?



(출처: KBS, '트럼프 리턴즈')

# 소결

- 최근 코로나-19 시기 세계적 경기침체와 더불어, 남부국경을 통한 이민자 유입이 크게 증가했다.
- 미국에서 강력범죄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범죄가 증가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펜타닐의 등장과 더불어 마약 문제가 가시화된 것이 하나의 요인이 아닐까 추측된다.
- 미등록 이주자와 범죄, 마약 문제를 엮는 여론이 있으나, 실은 미국 시민권자가 마약의 주요 사용자이다. 앞서 본 경제 문제가 그 요인이겠다.
- 그렇다고 남부국경 문제를 그대로 둘 수는 없는데, 국경 보안을 강화한다고 하여 관련 문제가 해결될지는 의문이다.

# 5. 트럼프주의 이념과 운동

: 내적 논리와 작동방식

# 어떤 시각에서 트럼프주의를 볼 것인가

- 모든 이념과 운동은 현실에서 출발한다. 현실의 문제, 불만, 변화를 향한 욕구. 트럼프주의 역시 그러하다. 트럼프주의는 우리가 숙고해야 할 미국의 현실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그러나 그 내적 논리와 작동방식, 어떻게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것인지, 어떻게 이를 설득하고 운동을 조직할 것인지는 다른 문제다.
- 쉽게 말해, 요구하는 것과 요구를 실현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정말 실현하고자 한다면, 상당한 분석과 노력이 필요하다.
- 트럼프 지지자들의 입장에서, 이들이 겪는 많은 문제를 트럼프주의 이념과 운동으로 과연 해결할 수 있는가?

# 트럼프주의의 네 가지 연결된 특징

- 피해자주의(victimism), 피해자화 및 그 의식의 공유
- 도덕적 선악 관념, 추상적 세계관을 사실에 대입
- 정체성의 중시, 폐쇄적인 공동체주의
- 초법적 투쟁과 폭력의 정당화

# 피해와 상실, 고통의 강조

- 2016년 공화당 전당대회 대선 후보 수락 연설

“매일 아침 저는 전국에서 만난, 지금까지 괘시 받고, 무시 받고, 버림 받아 온 사람들의 목소리를 전해야겠다고 결심합니다. 저는 구조조정 당한 공장 노동자와 최악으로 불공평한 자유무역으로 파탄 난 도시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들은 모두 ‘잊혀진 사람들’입니다. 필사적으로 일하는데도 그 목소리를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도심지에서 빈곤에 갇힌 어머니와 아이들, 나라 곳곳에 무덤처럼 흩어져 있는 녹슨 공장들, 너무나 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우리의 실현되지 않은 잠재력을 훔쳐 간 범죄, 갱단, 마약. 이 미국의 참상은 지금 여기서 끝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국민(nation)이고, 그들의 고통은 우리의 고통입니다.”

# 피해자의 동원: 엔젤맘(Angel Moms) 사례 (출처: CNN)





# 누가 우리 같은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겠는가



(출처: 네이버 블로그 '프리덤 파이터 TV')

# 피해자 의식의 '훈련'

- 과거 여성운동이나 흑인 민권운동의 방식 모방
- “나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무례하게 굴지 않았다. 그저 친구들과 커피를 즐기며 앉아 있었다. 그런데 직원들이 테이블을 둘러싸고 손가락질하며, (MAGA) 모자가 벗겨질 정도로 머리를 세게 때리겠다고 위협했다. 만약 오바마의 'HOPE' 티셔츠를 입은 사람을 향한 반발이 있었다면, 진보주의자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상상해보라.”
- “아이들은 빨간 MAGA 모자를 쓸 용기를 가졌기 때문에 표적이 되었다. 좌파는 당신이 원하는 무엇이든 입을 권리를 빼앗으려 한다.”

“미국과 미국인에 대한 사랑과 믿음”



(출처: 네이버 블로그 '프리덤 파이터 TV')

# 도덕적 선악 관념과 가해자 지목

- 현실의 문제로부터 경험하는 고통과 분노를, 피해자 대 가해자의 구도로 전환시키며, 이를 도덕적 선악 관념과 결부지음.
- 피해자의 고통과 분노는 정당하고 옳다. 이들은 도덕적이다. 우리는 너무나 평범하고 당연한 가치를 말하고 있다.
- 반면 가해자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피해자를 괴롭히는 악당이다. 이들은 악의로 가득 차 있다.
- '무엇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인가?'로부터 '가해자가 누구인가?'로 전환.

# 부패한 지배계급이 암약하고 있다 (출처: KBS, '트럼프 리턴즈')



# 모든 사실을 추상적 세계관으로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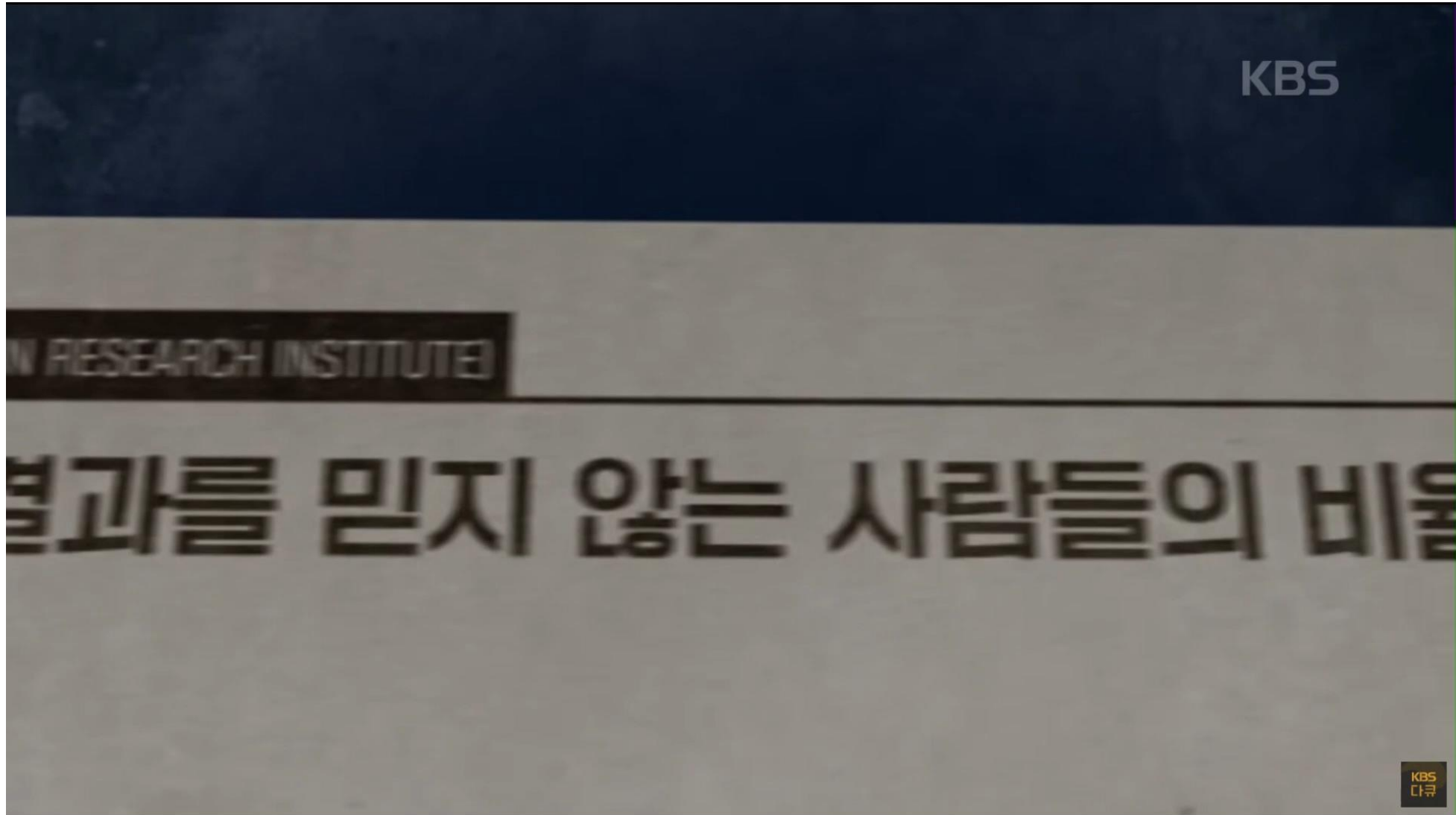
- 경제와 국경 문제 등 현실의 문제를 굉장히 많이 언급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분석은 없고, 대신에 그 모든 사실은 적들의 악의와 우리의 옳음을 증명한다고 주장.
- 가령 트럼프 행정부 말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및 실업률 폭등에 대해, 암약하는 지배계급이 민주당을 통해 '중국 바이러스'를 퍼뜨려 우리를 공격했다는 음모론.
- 우리만이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배계급이 우리의 목소리를 가로막고, 공격하고, 은폐하려 한다는 믿음.

“우리의 목소리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



(출처: 네이버 블로그 '프리덤 파이터 TV')

# 지금도 계속되는 대선 음모론 (출처: KBS, '트럼프 리턴즈')





# 적들에 맞선 투쟁의 촉구

- 심지어 대통령 임기 때도 유례 없는 수준의 집회 참여 (158회)
- “다른 대통령들은 선거 캠페인 차량에서 백악관으로 넘어오면, 국가를 통합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워싱턴에 처음 도착한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정치적 싸움을 즐기는 듯 했다. 그는 뉴스 미디어부터 자신의 행정부 내부의 구성원, 양당의 선출된 공직자, 외국 국가 원수에 이르기까지 식별된 적들의 긴 목록을 비판하는 데 대통령의 메가폰을 사용했다. 대통령으로서 보낸 2만6천 개가 넘는 트윗은 그의 생각을 광범위한 이슈에 대해 솔직하고 실시간으로 제공했다.”

# '허약한, 무늬만 공화당'인 의원을 쫓아내라



(출처: 네이버 블로그 '프리덤 파이터 TV')

# '우리'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지지자의 동원

- 셰러드 브라운(민주당 상원의원),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트럼프가 ‘무기력한 잼’이나 ‘거짓말쟁 이 테드’와 같은 별명을 붙일까, 또는 자신의 불충성에 대해 트위터에 올릴까 두려워한다. 혹은 최악의 경우 트럼프가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자신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이기 위해 자신의 주에 올라 걱정한다. 그들은 이렇게 고민한다. ‘폭스뉴스 진행자들이 나를 공격할까?’, ‘라디오 토크쇼 진행자들이 나를 공격할까?’, ‘트위터 트롤(troll)들이 나를 반대하는 여론을 조성할까?’ 내 동료들은 이 모든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 “부패한 판검사들에 의한 정치적 탄압”



(출처: KBS, '트럼프 리턴즈')

# 법치 파괴

- “누구도 법을 초월할 수는 없다”
- 그러나 저 지배계급이 본래부터 초법적으로 우리를 탄압하므로, 저들을 물리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우리도 초법적으로 싸워야 한다.
- 앞서 우익단체 오스키퍼스의 사례, “저들이 계엄령을 선포할 것이므로, 우리도 내전을 준비해야 한다.”
- 심지어 대통령직에 걸린 법적 제약이 걸림돌이 된다고 발언, “가장 슬픈 것은, 내가 미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법무부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나는 FBI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다는 점이 정말 답답합니다.”

# 연방대법관 임명에 관한 초법적 태도



(출처: 네이버 블로그 '프리덤 파이터 TV')

# 정치제도와 관습의 무시

- 유례없이 길었던, 2019년 행정부 섯다운 사태
- 행정명령으로 본래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는 공무원 5만 명을 정치적 임명직으로 교체하려 함. 트럼프는 이번에 재집권 시 "국방부, 국무부, 국가안보산업체에 존재하는 전쟁광과 국제주의자들을 물리치고, 국가안보의 전 분야에 유능한 새로운 관료들을 임명할 것"이라 공언.

“제가 당선되지 않으면 피바다가 될 겁니다”



(출처: KBS, '트럼프 리턴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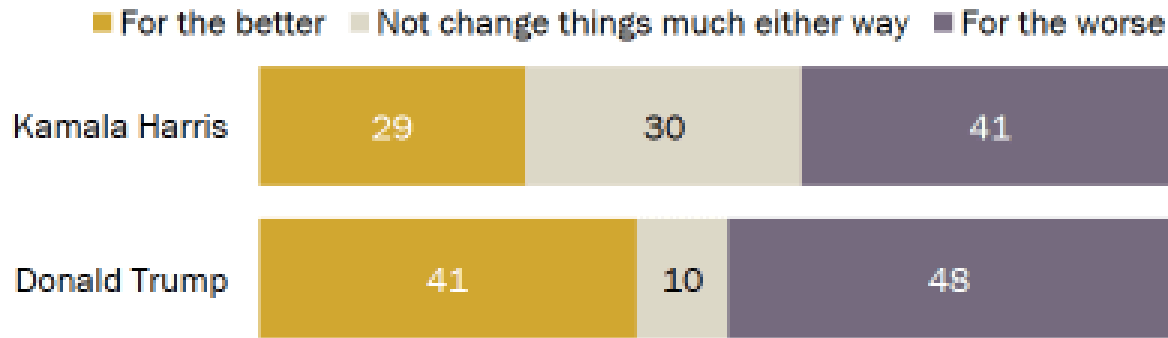


6. 이런 방식으로  
지지자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 변화를 바라는 열망과 트럼프

**More voters say Trump than Harris would bring change; larger shares say **BOTH** candidates would change things for the worse than for the better**

*% of registered voters who say each would change the way things work in Washington ...*



- 트럼프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답한 비율이 90%.
- 해리스는 현상을 유지할 것이라는 여론이 상대적으로 많음. (30%)

# 직접 민주주의와 요구의 표현



(출처: KBS, '트럼프 리턴즈')

# 그런데 어떻게?

- 요구를 말하는 것과 요구를 실현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
- 에너지 자립, 인플레이션 종식, 임금인상, 생산 증대 등등 모두 거대하고 복잡한 문제들임.

“매우 간단합니다!” (출처: KBS, '트럼프 리턴즈')



# 2024년 대선 공화당 강령

- 국경을 봉쇄하고 이민자의 침입을 방어하겠습니다.
-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작전을 실시하겠습니다.
- 인플레이션을 종식시키고 적절한 물가 수준으로 만들겠습니다.
- 미국을 세계에서 가장 지배적인 에너지 생산국으로 만들겠습니다!
- 아웃소싱을 중단하고 미국을 제조업 강국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 노동자를 위한 대규모 세금 감면을 시행하고, 팁에 대한 세금을 없애겠습니다!
- 우리의 헌법과 권리장전,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무기를 소지하고 보유할 권리를 포함한 기본적 자유를 수호하겠습니다.
- 3차 세계대전을 막고, 유럽과 중동의 평화를 회복하며, 미국 전역에 거대한 아이언돔 미사일 방어망을 (모두 미국산 제품으로) 구축하겠습니다.

# 2024년 대선 공화당 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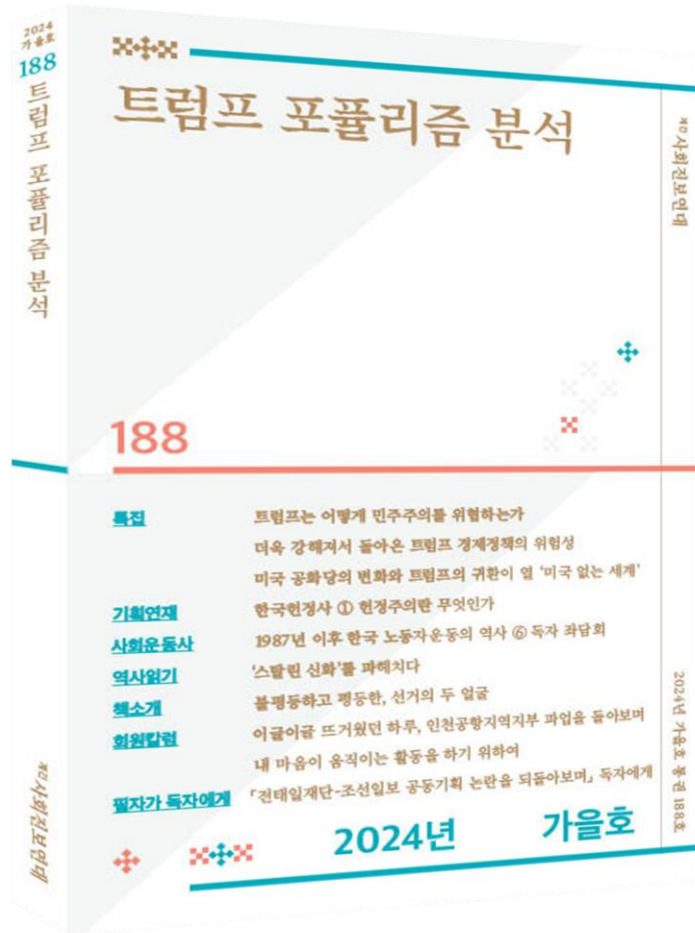
- 정부를 미국 국민을 향한 무기로 삼는 짓을 종식시키겠습니다.
- 이민자의 범죄 확산을 막고, 외국의 마약 카르텔을 해체하고, 갱단 폭력을 분쇄하고, 폭력 범죄자를 수감하겠습니다.
- 우리 도시를 재건하여, 안전하고 깨끗하며 아름다운 도시로 다시 만들겠습니다.
- 우리 군을 강화하고 현대화하여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로 만들겠습니다.
- 미국 달러를 세계 기축통화로 유지하겠습니다.
- 정년 변경 없이, 사회보장 및 의료보험을 삭감하지 않도록 투쟁하고 보호하겠습니다.
- 전기자동차 의무화를 취소하고, 비용을 유발하는 부담스러운 규제를 줄이겠습니다.

# 2024년 대선 공화당 강령

- 비판적 인종이론, 급진적 젠더 이데올로기 및 기타 부적절한 인종적, 성적, 정치적 내용을 우리 아이들에게 강요하는 학교에 대한 연방지원금을 삭감하겠습니다.
- 남성이 여성 스포츠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 친(親)하마스 급진주의자를 추방하여 대학을 다시 안전하고 애국적인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 당일투표, 유권자 신분증, 종이 투표, 시민권 증명 등으로 선거를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 새롭고 기록적인 성공을 통해, 국가를 통합하겠습니다.



# '엘리트'들이 이런 해법을 막는 이유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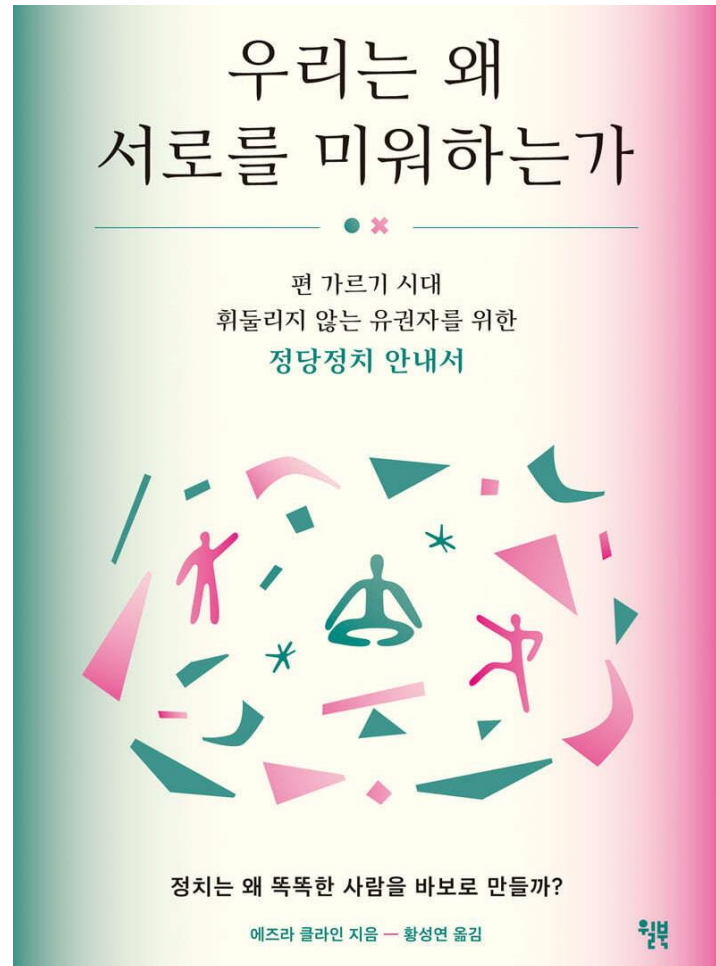
- 「더욱 강해져서 돌아온 트럼프 경제정책의 위험성」, 「미국 공화당의 변화와 트럼프의 귀환이 열 '미국 없는 세계」
- 감세를 시행하면서 이를 관세로 보충하는데, 인플레이션을 종식시키겠다?
- 세계질서 형성에 참여하길 거부하고 고립을 추구하면서, 국제적으로 복잡하게 얽힌 경제나 외교 문제를 대체 어떻게 풀 수 있다는 것인가?

# 소결

- 변화를 바라는 열망이 있고, 이를 트럼프주의로 이룰 수 있다는 기대가 크다. 그러나 요구를 하는 것과 이를 실현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트럼프 지지자들이 겪는 현실은 "매우 간단"하지 않다.
- 트럼프주의적 공약은 그 자체로 말이 안 되며, 현실성이 없고, 이를 실행한다 해도 지지자들이 겪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 트럼프주의자는 지지자들이 겪는 문제를 직시하고 분석하여 현실적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지 않는다. 대신에 이들은 세계관에 몰입하여 지배계급에 책임을 돌린다. 지배계급이 거짓된 이론으로 우리를 기만하고, 정당한 요구를 억압하는 게 근본 원인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자신의 노력하지 않음을 변명, 회피하는 것이다.

# 7. 트럼프가 위험한 '진짜' 이유

# “정치는 왜 똑똑한 사람을 바보로 만들까?”



- 더 근본적인 문제는, 트럼프 지지자들과 논의 자체를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 트럼프주의자의 말 이외에는 전부 거짓이라 생각함. 자신이 처한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를 토론할 수 없음.
- 운동 참여자를 세계관과 심리적 만족감에 빠지게 만들어, 부정적 적대적 감정을 생산하고 해소하길 반복하는 운동.
- 현실을 변화시키려는 정치운동이 사람을 바보로 만든다는 비극.

# 현대 민주주의의 토대 파괴

- 트럼프주의는 현대 민주주의의 토대인 여론의 자유와 공적 토론을 파괴한다.
- 한국의 역사적 맥락에서, 민주주의는 흔히 인민이 요구하는 것 자체 내지는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여기서도 '어떻게?'가 문제다.
- 한 축은 여론의 자유와 공적 토론의 보장이다. 이는 인민이 처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인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최대한 자유롭게 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 이 토대가 갖춰져야, 입법·행정·사법을 통해 쟁점을 풀어나가는 민주주의 정치제도가 성립할 수 있다.

# 현대 민주주의의 제도 파괴

- 『트럼프 포퓰리즘 분석』의 「헌정주의란 무엇인가」
- 국민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법, 정치제도, 관습으로 제한해야 한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
- 인류의 역사를 보았을 때, 권력이 독점됐을 때 항상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했기 때문.
- 현실에서 권리와 권리가 충돌하는 법적, 정치적 쟁점들이 존재.
- 대중운동과 일체화된 대표자가 사람들의 뜻이 이러하다는 근거로 여러 제약을 공격, 특정 입장에 따라서만 일방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문제.

# 트럼프주의는 어떻게 될 것인가?

- 구체적으로 전망할 수는 없겠으나,
-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트럼프주의적 정책을 1기 행정부 시절보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을 것. 그런데도 미국경제가 고도성장기로 회귀하지 못하고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때, 다시 한번 '세계관'을 통해 유예할 수 있을까?
- 해리스가 당선될 경우, 바이든 행정부처럼 얼마간은 트럼프주의적 요구를 약간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큰 틀에서는 기존의 기조를 유지할 것인데,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인가?

# 나가며

- 세 가지 주장. 트럼프주의는 그 지지자들이 처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더 근본적으로, 트럼프주의는 지지자들이 이를 생각하고 토론하는 것을 차단한다. 이런 극단주의 위에서, 트럼프주의자는 권력을 독점하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려 한다.
- (한국인의 입장에서 국익을 따지는 것을 넘어) 현실 분석을 회피하고 세계관으로 몰입함으로써 운동이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극단주의로 타락하는 문제, 나아가 민주주의 제도를 파괴하는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현실의 문제로부터 출발하면서, 그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직면하고 분석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운동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